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etoday.co.kr

제2343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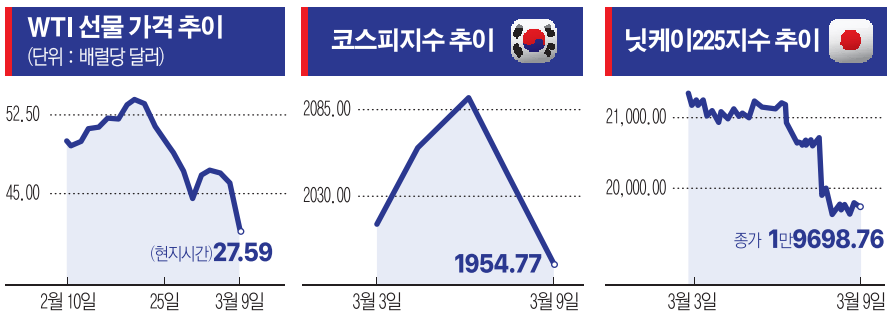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BanK!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박용만 "코로나 추경 40兆까지 확대해야" 5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 정용진 손잡았다 13

▼ 코스피(9일) 1954.77(-85.45P) ▼ 코스닥 614.60(-28.12P)
▲ 환율(달러당 원화) 1204.20(+11.90원) ▼ 금리(국고채 3년물) 1.038%(-0.040%P)

'逆오일쇼크'에 시장 패닉…코스피 4.2% 폭락



코로나 공포에 유가 폭락 겹쳐 닛케이 14개월 만에 2만선 붕괴 WTI 30% 이상 급락…환율 12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산유국 간 유가 전쟁이 '역(逆)오일쇼크'를 일으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관련기사 3·6·14면

9일 세계 증시는 일제히 '검은 월요일'을 연출했다.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9% 떨어진 1954.77, 코스닥지수는 4.38% 내린 614.6으로 각각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1.9원 오른 1204.2원에 장을 마쳤다.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07% 떨어진 1만9698.76으로 약 1년 2개월 만에 2만 선이 무너졌다.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다른 아시아 증시도 2~5%대 급락세를 보였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도 폭락세를 보이며 '검은 월요일'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S&P 500 선물거래(E-미니)지수는 아시아 시장에서 개장 직후 2819로 전 거래일 대비 5%,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져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거래제한을 발동하기도 했다. CME의 거래제한 발동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보도가 나온 2016년 11월 8일 밤 이후 처음이다. 호주 시드니 S&P/ASX200도 5% 넘게 떨어지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

시장 혼란의 주범은 산유국 간 유가 전쟁이었다.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PEC플러스(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과 주요 10개 산유국 연합) 장관급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감산 합의 불발로 원유 가격 전쟁에 불이 붙었다. OPEC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를 우려해 일일 생산량을 150만 배럴 감축하는 방안을 권고했지만, 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하는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이날 국제 석유거래시장이 열리기 직전 OPEC 맹주인 사우디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결정적 한 방을 날리면서 유가 전쟁에 불을 지폈다. 사우디는 유가를 20% 대폭 할인하고, 현재 하루 970만 배럴인 산유량을 4월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200만 배럴까지 증산한다고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 지역 경질유 공식 판매 가격이 배럴당 6달러 낮아지고, 미국은 7달러, 유럽은 8달러 떨어진다.

러시아도 맞불을 놨다.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에너지 장관은 4월 1일부터 일일 생산량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가격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원유 수요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급 과잉 우려까지 나오자 국제유가는 곧바로 곤두박질쳤다. 9일 시간 외 거래에서 4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45달러에서 31.54달러로 약 30% 폭락했다. 하루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낙폭이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도 30% 넘게 하락해 한때 배럴당 27.59달러로 주저앉았다. 하루 낙폭으로는 1991년 걸프전 이후 최대였다.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안전 자산의 대명사인 엔화 가치가 3년 4개월 만에 달러당 101엔대까지 치솟는 '엔고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추락, 한때 0.5% 이하로 떨어졌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5면에 계속 김서영 기자 0jung2@

역오일쇼크
수요 급감에 따른 유가 하락이 디플레이션을 촉발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공포에 코스피가 4% 넘게 폭락했다.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5.45포인트(4.19%) 하락한 1954.77을 가리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5억 달러 추가 투자…동남아에 베팅한 최태원

SK, 베트남 빈·마산그룹 이은 투자처 발굴

SK그룹이 동남아시아 투자에 다시 한 번 속도를 낸다.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에 추가적으로 5억 달러(약 6000억 원)를 투자해 이 지역에서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9일 SK그룹에 따르면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E&S, SK하이닉스 등 5개사는 동남아 투자를 전담하는 싱가포르 소재사인 'SK 동남아투자회사(SK South East Asia Investment)'에 각 1억 달러(약 1200억 원)씩 총 5억 달러의 추가 증자를 결정했다.

감사보고서에서 SK는 "SK 동남아투자회사에 추가 증자를 결정했다"며 "올해 안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로 예상됐던 출자는 지난달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출자에 참여한 회사들은 1월 말 이사회를 마치고 지난달 증자를 결정했다.

SK 동남아투자회사는 2018년 2월 최태원〈사진〉 SK 회장 주재로 말레이시아에서 동남아 지역 중장기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한 뒤 같은 해 8월 설립됐다. 설립 당시 SK㈜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 E&S 등 5개사는 1억 달러 출자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5개월 만에 2차 출자를 결정해 5개사는 총 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

두 번째 추가 출자 이후 1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투자는 SK그룹의 '동남아 인사이더' 전략의 연장선상이다.

SK그룹은 SK 동남아투자회사 설립 당시 동남아 신흥국들이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업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지역의 역량을 활용한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SK그룹은 2018년 8월 10억 달러(1조 1800억 원)를 투자, 베트남 빈그룹 지분 6%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같은 해 9월에는 베트남 마산그룹 지분 9.5%를 4억7000만 달러(5300억 원)에 매입하며 동남아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추가 투자 역시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서 사업 기회를 적시에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투자처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진 기자 eugene@

코오롱인더, 마스크용 MB필터 무상공급

의료용 연구설비 전환 생산키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 제조 시 핵심 부자재인 MB(Melt Blown)필터를 9일부터 생산해 무상 공급에 나섰다.

MB필터는 폴리프로필렌(PP)을 고온으로 녹인 후 고압의 바람을 통해 연신·접착 과정을 거쳐 만든 초극세 섬유의 부직포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부자재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보유 중인 의료용 MB필터 파일럿 설비(연구용 실험 설비)를 마스크용 MB필터 제조용으로 전환해 가동키로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날부터 약 200만 장의 마스크 제조가 가능한 분량의 필터 생산을 목표로 순차로 마스크 제조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코오롱인더스트리 연구원들을 파일럿 설비에 투입해 24시간 교대로 풀 가동에 들어갔다. 생산된 마스크용 MB필터는 정부와 협의한 후 마스크 제조업체에 무상 공급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여행·숙박·운송·공연, 휴업급여 최대 90% 지급

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생활안정자금 월급 388만원 이하로 확대

정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영 활동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취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인건비(휴업급여)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2·4·6·12·16·18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정부가 사업 악화로 고용 사정이 어려운 업종을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수요와 단체 행사 등이 급감해 매출 감소가 큰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행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업종 종사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업종 사업주들이 그동안 요청해온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근로자 1인당 지급한 휴업급여 중 90%(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우선지원대상기업·1일 7만 원·연간 180일 지급)까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월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388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적용(3월 9일~7월 31일 시행)키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구매 쉬워져" vs "또 없다네요"… 지역마다 '온도차'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

기업 밀집지역 조기 매진 행렬
유동인구 따라 물량 수급 제각각

구매 제한에 대기줄 짧아졌지만
번호표 발급 예약 판매 진풍경도

정부의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서울 지역에서 마스크 구하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인 곳이 많았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구매 제한에 약국 앞 길게 늘어선 줄서기 행렬의 길이는 이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지역별로 다른 입고시간과 제한된 수량에 구매를 못 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이날부터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이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장당 1500원에 2장씩 살 수 있다.

특히 오전 시간에 판매가 시작된 곳들에서는 조기 매진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시작된 경기도 분당구 약국에선 10분 만에 마스크 판매가 완료됐다. A약국의 약사는 "오늘 들어온 분량은 250장인데 순식간에 빠르게 소진됐다"며 "이후 지속적으로 약국에 방문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 앞에 '마스크 분량 모두 소진'이라고 붙여 놨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8시부터 영업을 시작한 B약국은 10시부터 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해 2시간 만인 12시께 성인용 마스크가 동났다. 이곳의 약사는 "마스크 입고 시각이 들쭉날쭉한 상황으로 오늘은 10시께 입고됐다"며 "영업 전부터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12시까지 줄서서 사 갔다"고 했다.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도 마스크 구매가 쉽지 않았다. 직장인 C 씨는 "오전 중에 회사 근처 마스크 판매처 몇 곳을 돌았지만 허탕 쳤다. 5부제라고 해서 좀더 사기 수월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스크가 없다고 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오후에 판매를 시작한 약국들에선 마스크 구매가 어렵지 않았다.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한 약국에선 2~3명 정도만이 대기가 있을 뿐 내부가 한산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직장인 D 씨는 "선착순이 아니라서 그런지 마스크 구하기가 한결 나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인 '마스크 5부제'가 9일 실시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약국에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인 한 시민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강남구의 한 약국에서는 오전에 대기표를 발급했다. 이 약국 약사는 "손님들이 시간을 내서 왔는데 또 줄을 서게 해서 죄송한 마음에 예약제를 생각했다"며 "번호표를 받은 분들은 오후 시간대 이후에 오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약국에서는 정오 무렵부터 혼란스러운 분위기 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했으며 1시간이 지난 이후까지 물량 소진 없이 판매가 이어졌다.

이 같은 체감온도 차이는 약국 주변 유동인구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업무지구 등 인구밀집지역이나 대로변 등에서는 마스크가 일찌감치 동난 데 비해 골목 안쪽이나 유동인구가 적은 곳의 약국은 오후 시간대까지 마스크 구입이 가능했다.

어린 자녀나 부모님 대신 마스크를 구입하러 나선 이들도 눈에 띄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대리 구매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약국에서 만난 40대 주부 E 씨는 "아이들 마스크는 대신 살 수 있다고 해서 남편에게 등본을 떼 놓으라 했다"고 말했다.

연세 든 어머니의 마스크를 대신 사러 왔다는 또 다른 주부 F 씨는 "1921년생이신 친정어머니의 마스크를 사러 왔는데, 주민등록등본이 없어 못 샀다"며 "등본이 필요한지 몰랐다. 동사무소에서 나눠주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약국당 판매 속도에 대한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마진 장당 최대 200원… 약국은 400원

'지오영'·'백제약품' 특혜 논란에
정부 "전국 유통망·전문성 보유"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의 마진이 장당 400원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유통을 맡은 '지오영'과 '백제약품'의 유통 마진은 100~200원 수준이었다. 유통 업체가 독점적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과도한 가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일 '공적 마스크 공급권·가격 구조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조달청의 마스크 제조업체와 공적 마스크 계약 단가는 900~1000원, 정부가 약국 유통 채널로 선정한 의약품 제조업체 지오영과 백제약품의 약국 공급가는 1100원이라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의 소비자가격은 1장당 1500원이다. 이에 따라 약국의 마스크 판매 마진은 장당 400원이다. 약국 1곳당 하루 평균 공급치인 250장을 모두 판다면 평균 10만 원의 마진을 남기는 셈이다.

공적 마스크는 2만3000여 곳의 약국에 하루 560만 장이 공급된다. 약국의 마스크 판매에 따른 마진은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 22억4000만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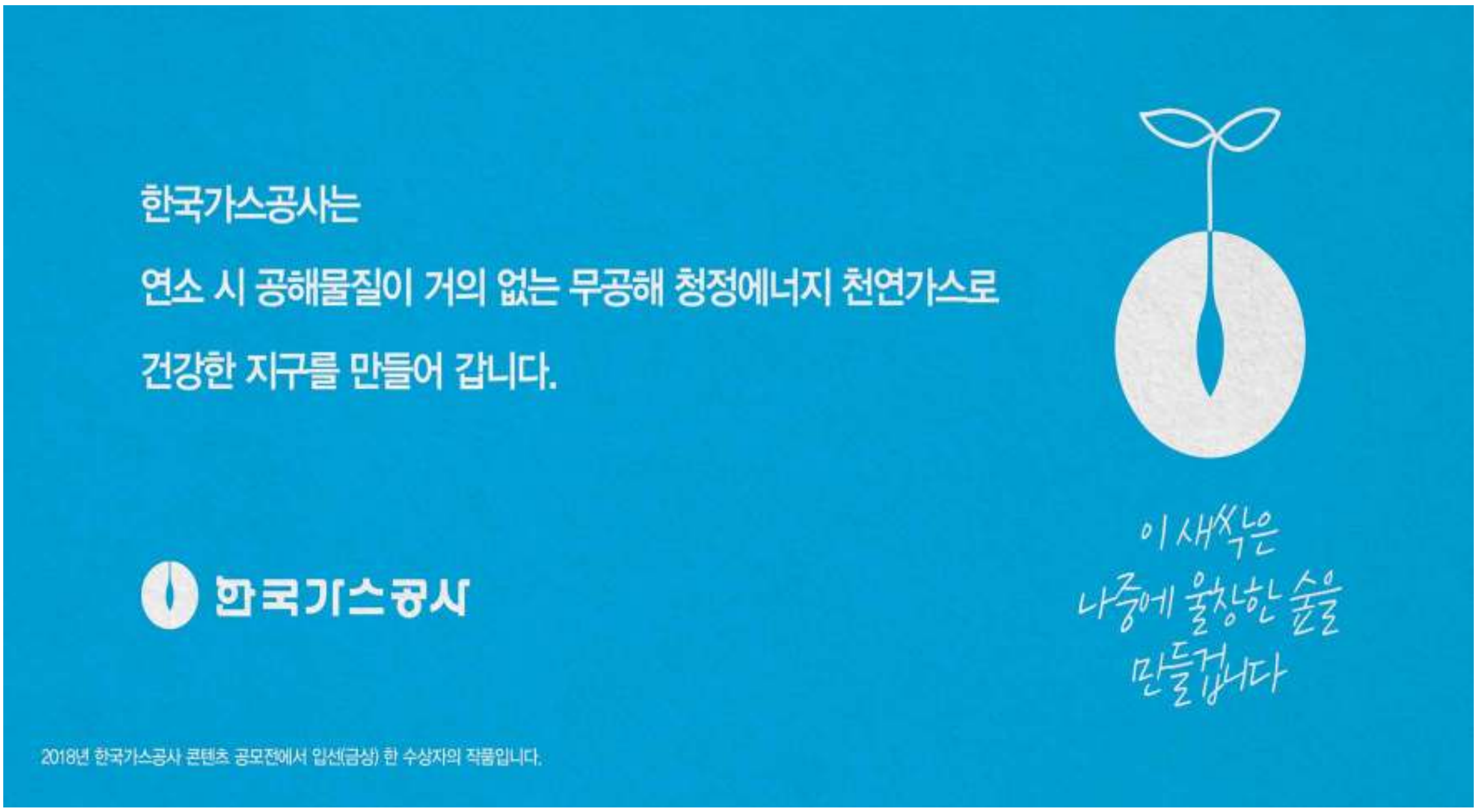
다만 부가가치세(150원)와 카드결제 수수료(30원), 약사 인건비 등을 빼면 약국이 가져가는 이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유통 채널을 맡은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에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 1장당 100~200원의 마진을 남긴다. 하루 평균 560만 장을 공급하기 때문에 하루 마진은 5억6000만~11억2000만 원이 된다.

특정 유통업체에 독점적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마진과 관련해선 "이들 업체는 마스크 수급안정화대책 이후 공적 물량의 신속한 유통·배분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유통 체인을 가동해 공장 출고분이 그다음 날 전국 약국으로 배송돼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물류창고에서는 배송받은 벌크 마스크 포장을 밤샘 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씩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하고 포장해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다음 주부터 진정세… 반도체·바이오 등 실적株 주목"

전문가 주식시장 전망

코로나19·국제유가 급락 여파
주가지수 폭락 공포지수 급등

"이번 주 변곡점으로 차츰 진정"
추가 하락 가능성 낮게 점쳐
"IT 업종 펀더멘털 우량주 중심
저가매수 전략 유효" 분석도

홍콩·일본증시도 주저앉았다 홍콩에서 한 여성이 9일 항셍지수가 표시된 전광판 옆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19 공포와 국제유가 폭락 여파로 이날 홍콩증시에서는 항셍지수가 4% 이상 주저앉았다(왼쪽).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이 증권사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급락하며 '블랙 먼데이'를 연출했다. 홍콩/EPA연합뉴스·도쿄/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비상사태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내주부터 패닉장이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반도체와 바이오 등 실적 중심의 투자를 추천했다.

9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9%(85.45포인트) 급락한 1954.77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46.90까지 하락하며 지난해 8월 29일(1928.4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4.38%(28.12포인트) 떨어진 614.60에 장을 끝냈다. 이탈리아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의 급격한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이 영향을 미쳤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급락이 결부되면서 아시아 시장이 빠르게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하회한 과매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반등을 위해서는 글로벌 확진자 수 진정과 3월 중순 미 연준의 추가적인 정책 발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물량을 쏟아냈다. 외인은 이날 하루 동안 코스피시장에서 1조312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기관도 464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인과 기관은 각각 1393억 원, 605억 원을 매도했다.

지수가 낙폭을 키우면서 변동성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 거래일 대비 8.70포인트(31.67%) 급등한 36.17에 거래를 마쳤다. 변동성 지수는 코스피200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시장의 기대 변동성을 측정한 지표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상승해 '공포지수'로 불린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중심으로 유럽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나 미국 하이일드 금리가 급등세 보이고 있다"며 "해당 금리들이 오른다는 것은 부도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증시 반등을 위해서는 연준의 넓은 형태의 통화정책, 글로벌 공조 정책, 코로나19 진정세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금 가격은 최고가를 경신했다. 통상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가격이 오른다. 이날 KRX 금시장에서 금 현물(3.75g)은 전 거래일 대비 0.73%(470원) 오른 6만4480원을 기록했다. 장중 6만5520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증시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게 점치고 있다. 특히 이번주를 변곡점으로 차츰 진정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생산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여행과 인프라, 서비스 산업이 붕괴되는 등 소비 리스크가 남아있다"며 "오늘 증시가 급락했는데 바닥을 다지며 가격조정 레벨은 멈출 것"이라며 말했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등 실적 중심의 투자 전략을 추천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분기 코스피 전기전자(반도체) 매출액 컨센서스는 92조98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5% 늘었다. 같은 기간 의약품(바이오)은 7585억 원으로 21.63%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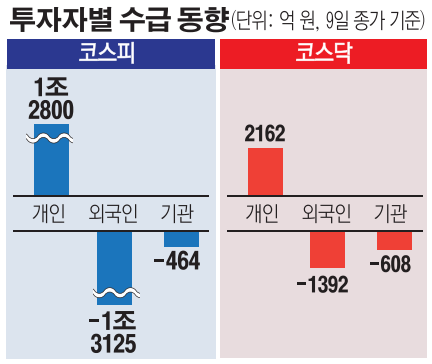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먼저 빠졌고, 코로나19 사태가 변곡점을 형성해가고 있어 이번 주까지는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2000포인트 아래서는 IT 중심의 펀더멘털 우량주를 긴 호흡으로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이신철 기자 camus16@
이다원 기자 leedw@

外人 하루 1.3兆 팔아 '역대 최대'
"팬데믹 공포에 보수적 투자 전환"

개인투자자는 1.2兆 순매수

투자자별 수급 동향(단위: 억 원, 9일 종가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시장을 덮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일간 기준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당분간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하루 동안 1조312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2010년 11월 11일 하루 동안 1조3094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이후 역대 최고 순매도 금액을 경신했다.

외국인은 2011년 8월 10일(1조2625억 원) 이후 약 8년 6개월 만에 1조 원대를 팔아치우며 매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관도 이날 하루 동안 총 464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인·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며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5.45포인트(4.19%) 하락한 1954.77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8월 29일(1933.41)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이날 홀로 1조28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다. 2011년 8월 이후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팬데믹' 공포가 퍼진 영향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 공포가 미국으로 번지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투자 스탠스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주요 산유국이 추가 감산 합의에 실패해 국제유가가 급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6일(현지시간) OPEC+(OPEC 플러스)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추가 감산안을 논의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주저앉으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됐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출발했다"며 "더 나아가 국제 유가가 30% 급락하며 30달러를 밑도는 등 변동성을 확대한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기 힘들다고 분석한다. 정 센터장은 "미국 정부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미국 시장이 불확실성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변곡점을 형성해가고 있음에도 국내 증시 역시 이번주까지는 지금처럼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다원 기자 leedw@

518→483→367→248 확진자 3일 연속 감소… 집단감염이 변수

신천지 검사 마무리되면서 추가 확진자 큰폭으로 줄어
요양병원·천안 줌바댄스 등 소규모·산발적 감염 우려

'코로나 유람선' 美 해상 대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인원을 태운 유람선 그랜드 프린세스호가 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약 48㎞ 떨어진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 유람선은 승객과 승무원 약 350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위해 오클랜드 항구에 정박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추가 확진자 증가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요양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요양병원은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많아 중증 이상의 위험한 상황이 우려되고, 지역에서는 줌바 등 운동시설 등에서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 하루 96명 늘어난 7478명이라고 집계했다. 전날 248명이 늘어난 데 이어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아래를 밑돌았다. 신규 확진자 수(0시 기준)는 6일 518명을 기록한 뒤로 7일 483명, 8일 367명, 9일 248명으로 사흘 연속 감소했다.

특히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전날인 8일 하루 사이 135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비(非)신천지 확진자는 113명이 증가하며 신천지 확진자 수가 비슷해졌다.

이 같은 신천지 제외 확진자 증가는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늘었다. 경북 봉화군 푸른요양원, 칠곡군 밀알 사랑의 집, 경산 제일실버타운, 서린요양원, 참좋은재가센터, 행복요양원, 엘림노인요양고용생활가정 등에서 집단발병이 확인됐다.

고령자·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탓에 위중환자 42명을 포함한 중증 이상 환자도 65명이나 된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많은 탓에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53명이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에 대구지역에서 고령 확진환자가 많아지면서 위중한 환자의 숫자가 많아졌다"며 "중증 치료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워낙 고령인 환자가 많아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요양병원은 한 병실에 둘 수 있는 이용자 기준이 없어 요양보호사 1~2명이 10여 명씩을 관리하는 곳도 많아 감염병 관리에 취약하다. 이에 경북도는 이날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573곳 모두를 코호트 격리해 시설 직원들이 외출이나 퇴근은 물론, 외부인 면회, 입소자 외출 등도 모두 금지했다.

지역에서 산발적인 발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일 천안에서 열린 줌바댄스 워크숍은 충남에서 대규모 확진자를 발생시켰다. 충남 확진자 102명 가운데 92명이 워크숍과 관련이 있고, 이날 세종에서도 줌바댄스 수강생 등 5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그동안 한 명의 확진자가 없던 경기 안성에도 천안 줌바댄스 강사인 며느리를 통해 67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정 본부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가 확인되고 있고, 이들 지역은 주로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다중이용 실내시설에 대한 예방조치와 정확·신속한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30·40대 잇따라 사망자 발생 기저질환 없어도 안심은 금물

위중 환자 대부분 고령 추가 사망자 나올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날 0시보다 248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간 신규 확진환자가 300명을 밑돈 건 지난달 26일(284명) 이후 12일 만이다. 오후 4시 기준으론 총 7378명으로 0시보다 96명 늘었다.

다만 사망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다. 오후 4시까지 53명이 숨졌다.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121명, 이하 확진환자 수), 봉화군 푸른요양원(51명), 칠곡군 밀알 사랑의 집(25명) 등 고령자·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탓에 위중환자 42명을 포함한 중증 이상 환자도 65명이나 된다.

위중환자 대부분이 고령의 기저질환자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에 대구지역에서 고령 확진환자가 많아지면서 위중한 환자의 숫자가 많아졌다"며 "워낙 고령인 환자가 많아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의 특성도 다양해지고 있다. 초기엔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을 지닌 사망자만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30·40대 사망자와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 30대 사망자 1명은 투석치료를 받던 중 숨졌으나, 40대 사망자 1명은 아직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40대 사망자는 경북 경주시에서 사망 후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확인된 사례다. 50대 사망자 대부분은 대남병원 입원자로 오랜 입원생활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고령자가 아니거나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면역력 등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코로나19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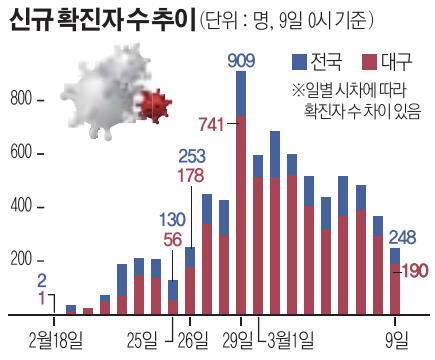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9일 0시 기준, ( )는 8일 0시 대비

	총환자	사망	격리해제
확진환자	7382명 (+248)	53*명 (+1) +2*	166명 (+36)
	총검사	검사중	결과음성
검사현황	18만 9236명 (+7852)	1만 7458명 (−1918)	17만 1778명 (+9770)

*9일 오전 11시 현재 사망자 2명 추가, 0시 기준 사망자는 51명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단위 : 명, 9일 0시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대구시

국외 사망자도 증가세다. 이날 오전 9시 기준(한국은 0시)으로 이탈리아에선 확진자 7375명 중 366명, 이란에선 6566명 중 194명이 숨졌다. 프랑스에선 1126명이 확진돼 19명이 숨졌고, 미국은 확진자가 537명에 불과하나 사망자가 21명이나 된다.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3809명 중 710명이 중국 외 국가에서 발생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사망자가 여전히 증가 추세이고, 고위험군이 많은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에 유입 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아직은 안심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며 "조기 발견과 접촉자에 대한 관리, 또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 강화 같은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현대차그룹, 연수원 2곳 생활치료센터로 제공

경주 인재개발연수원 193실, 글로벌협력센터 187실
5월 개소 예정이었지만 정부 요청에 신속히 마련

현대자동차그룹이 경상북도에 있는 그룹 연수원 2곳을 대구·경북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의 병상 부족으로 자가 격리 중인 경증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돕기 위해서다.

현대차그룹이 제공키로 한 그룹 연수원은 경주시 양남면 소재 경주인재개발연수원과 글로벌상생협력센터로, 지상 4층·지하 2층 규모다. 경주인재개발연수원은 193실, 글로벌상생협력센터는 187실 등 총 380실의 숙박시설과 강의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치료가 이뤄져 빠른 회복과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인재개발연수원과 글로벌상생협력센터는 현대차그룹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미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센터로 2017년 말 착공했다.

현대차그룹은 애초 3월부터 차례로 숙박 및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춘 뒤 3월 말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정식 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경증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과 정부의 지원 요청 등을 고려해 필수 시설 보완과 점검을 시급히 마무리해 제공키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0억 원을 냈고 의료진, 피해자,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호·방역 물품 제공 및 예방·방역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치료 방역 등 의료활동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집콕 답답해서"… 피로감 커진 시민들 '나들이 행렬'

"예방수칙 잘 지키면 문제없어"
주말 공원·놀이공원 인파 붐벼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 씨(35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지난 주말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을 찾았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활동 등을 자제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계속 집에만 있기에는 답답하고, 한창 밖에서 뛰놀아야 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서다.

이모 씨는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계속 집에만 있기엔 피로감이 큰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외부활동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권고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마냥 바깥 활동을 안 하고 집에서만 생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일요일 청주시 문암동에 있는 문암생태공원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즐비했다. 공원 주차장에 자가용들이 빼곡히 들어서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청주 오창에 위치한 호수공원도 사람들로 가득 차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잔디밭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호수 주변을 거닐었다. 아이들 역시 마스크를 쓴 채 뛰어다니거나 킥보드를 타는 등 평소처럼 야외활동을 했다.

같은 날 서울 롯데월드를 찾아 마스크를 쓰고 놀이기구를 타는 이용객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대구의 커피숍도 사람들로 붐볐다는 후문이다.

이날 롯데월드를 찾은 직장인 김모 씨(45세)는 "이전 주말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집에 콕 박혀 있었지만 아이들이 지겨워해 놀이공원에 오게 됐다"며 "마스크도 잘 쓰고 손소독제까지 꼼꼼히 챙겨서 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50일을 맞이한 9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세가 누그러져 어느 정도의 야외 활동은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오후 4시 기준으로 오전 0시 대비)는 3일 374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5일 322명, 6일 309명, 7일 274명, 8일 179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세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닌 만큼 국민이 야외활동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고 볼 수 없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박용만 "코로나 추경 역부족… 40조까지 확대해야"

"중소기업 자금지원 더 빨리"

韓 경제성장률 1.9%→1.4% 무디스, 한달 만에 하향 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GDP)이 최악의 경우 0.8%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11조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0.2% 수준의 GDP 부양에 그친다며 40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9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달 16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춘 바 있다.

무디스는 이날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은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세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불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8%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성장률 기본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은 5.2%에서 4.8%로, 미국은 1.7%에서 1.5%로 각각 내렸다.

무디스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이 올해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장기간 소비가 위축되고 휴업이 장기화하면 기업 이익이 타격을 받고 해고가 증가하며 경제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추경을 최소 40조 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심사가 시작될 (정부)추경안 11조7000억 원 규모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역부족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11조7000억 원으로 추경이 전액 집행되더라도 GDP 부양 효과는 0.2%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올해 1%대 성장 전망이 많은데 1% 성장을 위해서 약 40조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추경안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통로)이 더 빨리, 넓게 뚫려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인을 하고 정부와 한국은행까지 다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모든 SOC 민간투자 허용… '적정성' 심의로 무분별 사업 방지

수조 원대 민자사업 속도… 실시협약 정보공개도 의무화

앞으로 모든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허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가 도입된다.

6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 철도 등 53종에 한정됐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모든 시설(포괄주의)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2017년 4월 처음 제안됐으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관련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시)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은 법령에 명시된 분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해왔으나 급속한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포괄주의 도입으로 앞으로 수조 원대의 대규모 신규 민자 사업 발굴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특히 전통적인 교통 인프라 시설뿐 아니라 자율주행도로, 전기충전소, 빅데이터 센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시설에도 민간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재정 여력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던 생활·복지 SOC 확충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 의원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민간투자가 대폭 확대되면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SOC 확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의료진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의료진이 "꽃이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응원 문구가 새겨진 화분들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유가 배럴당 20달러대 고착화 우려

'逆 오일쇼크'에 블랙 먼데이

▶1면서 계속

전문가들은 "집단적 자살행위"라고 경종을 울리는 등 비관론을 쏟아내고 있다. 밥 맥날리 라피단에너지그룹 대표는 "수요 급감과 공급 급증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라면서 "1930년대 초 이래 최고의 가격 하락 조합이다. 가격 붕괴가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바이탈날리지의 애덤 크리사풀리 설립자는 "브렌트유가 계속해서 추락하면 뉴욕증시 S&P500지수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석유산업은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분야 기업은 채권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엑손모빌의 선임 중동 자문을 지내고 현재 전략 컨설팅 업체 드래고맨벤처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알리 케더리는 "국제유가 20달러(배럴당) 시대가 오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실질적 '원투펀치'가 돼 이라크와 이란 등 산유국들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에드워드 벨 에미리트NBD 상품 애널리스트는 "OPEC 멤버들이 현재 실질적 증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격 전쟁에 대비할 것"이라며 "당초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응하고자 감산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충격적 반전을 보였다"고 말했다.

CNBC는 원유시장이 공급 홍수와 재고 급증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충격이 이미 가격 측면에서 시장에 강하게 충격을 준 가운데 앞으로 등장할 공급 급증으로 유가 하락은 불가피하며, 이제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2~3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배럴당 30달러로 낮추고, 수주 안에 가격이 2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건스탠리는 2분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35달러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WTI 가격 전망은 배럴당 30달러다.

코로나 굴레에 갇힌 세계…유가 폭락, 금융시장 새 불씨 키웠다

"글로벌 경제 'L자형' 장기 불황 우려"

〈노무라 리서치〉

경제활동 저하로 수요 급감·물류 정체 초래
'오일전쟁' 여파 중동 산유국 넘어 세계로 확산
"에너지업계 '디폴트 리스크' 고조" 경고도

글로벌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굴레에 갇혀 버렸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국제유가 폭락을 통해 중동으로 파급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새로운 불씨를 키우고 있다. 전염병에 의한 경제활동 저하가 수요 급감과 물류 정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까지 강타하는 복합적인 위기 양상이 '역(逆)오일쇼크'를 촉발했다고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진단했다. 역오일쇼크는 수요 급감에 따른 유가 하락이 디플레이션을 촉발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에 따르면 국제 원유 시장과 증시 혼란 등 코로나19의 충격파가 세계 경기 침체 우려와 맞물리면서 돈의 역회전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특히 역오일쇼크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증시의 타다울지수는 전날 8.3% 폭락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플러스(+)가 6일 예상을 깨고 감산 합의에 실패한 것이 역오일쇼크를 촉발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감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재정난에 처한 여러 나라가 감산에 반발하면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시장 점유율 하락을 이유로 감산에 반기를 들자 분노한 OPEC 맹주 사우디가 석유 판매 가격 인하와 증산이라는 카드로 '오일전쟁'을 더욱 격화시켰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런 사태가 미치는 충격은 중동 산유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원유 등 화석연료 관련 기업 주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중시하는 투자 트렌드로 압박받아왔는데 이번 사태로 더블 펀치를 맞게 됐다. 이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회사에 역풍이 된다. 또 중동 산유국들의 국부펀드가 기존 세계 각국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레바논이 7일 12억 달러(약 1조4450억 원) 규모 외화 표시 국채 상환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레바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순채무 비율은 158%로 높은 편이지만, 상환 연기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달러화 표시 부채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유가 폭락이 글로벌 금융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신용등급이 낮은 미국 에너지 업체들이 발행한 회사채도 디폴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적격등급(신용등급 BBB 이상) 미만 회사채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ICE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미국 하이일드 채권지수 수익률은 6일 6.65%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채권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그만큼 미국 회사채에 매도세가 유입됐다는 의미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활동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기업 자금난이 에너지 이외 분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경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글로벌 회사채 발행액은 13조5000억 달러로, 2008년보다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이 중 향후 3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회사채 잔액은 4조 달러가 넘는다.

노무라 글로벌 마켓 리서치는 지난주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세계 경제가 'V자형'이 아닌 'L자형'의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8일(현지시간) 문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국왕 건강이 악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살만 국왕이 공무를 보는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 의혹 불식에 나섰다. 리야드/EPA연합뉴스

꽉 막힌 하늘길에… 날개 꺾인 항공업계

실적악화 위기…무급휴직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생사 갈림길에 놓인 글로벌 항공업계가 고육지책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항공 수요가 급감하며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실적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인건비를 쥐어짜고 있다.

홍콩 캐세이퍼시픽은 항공편이 40%나 감소하자 3만3000명의 직원에게 6월 30일까지 3주간의 무급휴가를 권고했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로 타격을 입은 캐세이퍼시픽은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실적 악화 위기에 내몰렸다.

독일 루프트한자도 6일 수주 내 항공편이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노조와 협의해 근무시간 단축과 무급휴가 조치에 들어갔다. 국제 노선이 많은 아랍에미리트항공도 최대 한 달간의 무급휴가를 허용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도 채용을 동결하고 무급휴가를 권고했다. 이번 주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던 23명의 조종사도 비행에 투입되지 못한 채 공중에 붕 떴다.

이처럼 글로벌 항공사들이 인건비 절감에 나서면서 미국의 46만2000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295만 명에 달하는 항공업계 종사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칼바람을 맞게 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업계 인력의 5%만 타격을 입어도 전 세계에서 1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국에서만 2만 명 이상이 실업자가 된다"고 추산했다. 미국 항공업계에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업계 전체 인력의 11%에 해당하는 6만2000명을 감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운항 감소로 항공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9·11 테러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항공업계 종사자 규모가 2001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IATA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항공업계의 매출 손실이 1130억 달러(약 1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피해 규모로, 전 세계 항공사의 올해 매출이 전년보다 19% 감소할 것이라는 의미다. 김서영 기자 0jung2@

아람코 주가 폭락에…무함마드 도발?

상장後 첫 공모가 밑으로 떨어져
'비전 2030' 차질 우려에 공격적

세계 시장에 혼란을 부른 사우디아라비아의 어깃장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조바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그가 내세운 탈(脫)석유 정책 '비전 2030'의 핵심인 국영 석유업체 사우디아람코 주가가 폭락하자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한 것이다.

사우디는 6일 산유국들의 합의체인 OPEC플러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한 감산 합의에 실패하자 사상 최대 증산을 예고했다. 다음 달 산유량을 종전의 하루 약 97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로 늘리고, 필요하다면 1200만 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에 금요일과 토요일 휴장을 끝내고 일요일인 8일 개장한 사우디 타다울증시에서는 아람코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추락해 결국 전 거래일 대비 9.1% 폭락한 주당 30리얄로 마감했다. 아람코 주가가 지난해 12월 기업공개(IPO) 당시 공모가인 32리얄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아람코의 주가 폭락으로 사우디 정부는 물론 무함마드 왕세자도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그는 아람코의 사우디 증시 상장 성공을 지렛대 삼아 올해 그동안 염원했던 해외 상장을 실현하려 했으나, 유가 하락에 따른 아람코 주가 폭락으로 계획이 물 건너가게 된 것이다. 아람코 IPO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개혁정책의 근간으로, 경제와 사회 개혁 재원을 마련하고자 상장한 것이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아람코의 기업가치가 2조 달러(약 2406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아람코 가치가 서구 석유회사에 비해 과대평가됐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12월 IPO 당시 아람코 가치는 1조7000억 달러로 평가됐는데, 계속되는 주가 하락 탓에 이 수준을 지키기도 불확실해졌다.

아람코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면 사우디 국내 정세가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다. 사우디 정부는 아람코 상장 당시, 개인 투자자들에게 IPO에 적극 참여하라고 압박했는데, 아람코 주가가 떨어지면서 현지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84세로 고령인 무함마드의 아버지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의 건강이 나빠져 무함마드 왕세자의 즉위가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에 지난 주말 무함마드가 왕위 경쟁자로 꼽히는 친족들을 잇따라 체포한 것은 즉위 전 걸림돌들을 치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배준호 기자 baejh94@

伊 교도소 '코로나 폭동'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에 있는 포지오레알레 교도소 앞에 8일(현지시간) 수감자 가족들이 대거 몰려와 있다. 이탈리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이동제한 조치를 발표, 이에 포지오레알레 등 4개 교도소가 면회를 금지하자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3명이 사망했다. 이날까지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7375명, 사망자는 366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상황이 심각하다. 나폴리/로이터연합뉴스

애플, 한국 등 전세계서 재택근무 실시

팀 쿡 "코로나19, 전례없는 사태"…급여는 정상 지급

애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팀 쿡〈사진〉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코로나19 발생은 전례 없는 사태이자 지금은 시련의 시기"라면서 전 세계 직원 대부분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13일까지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허용되며, 주로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밸리와 엘크 그로브, 시애틀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지의 직원이 해당된다.

앞서 애플은 7일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한해 재택근무를 적용했는데, 이날 이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한 것이다. 애플은 이미 코로나19가 확산한 중국과 한국,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직원 출장도 제한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 쿡 CEO는 "애플은 사람들의 밀집을 최대한 피하고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을 최대화하고 지속적으로 훨씬 강화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정상 급여를 계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애플은 중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앞서 애플은 이번 분기에 최소 630억 달러(약 75조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둘 것이라는 기존 실적 전망을 철회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

‘DLF 부실감독 논란’ 금감원… 감사원, 본감사 내달 유력

코로나 여파 대부분 일정 지연
은행 관리·제재 적정성 여부 등
현장자료 토대 감사 착수 판단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현장 자료 수집을 마친 가운데 다음 달 본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타 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감사들까지 모두 중단되면서, 자료 수집 후 금감원 감사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던 감사원 일정 대부분이 다음 달로 연기되는 추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과 제재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조사 항목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자료를 토대로 본감사 착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코로나 19사태로 감사원의 현장 감사 일정이 대부분 지연되면서 금감원 본감사는 다음 달이 유력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금감원뿐 아니라 타 기관에 나가 있던 감사들도 현장에서 철수했고, 전체 감사 일정이 뒤로 미뤄진 상황이라 금감원 본감사가 3월에 이뤄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금감원 현장에 나갔던 것은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장 자료 수집 차원이었기 때문에 본감사 실시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을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당시 시민단체는 금감원이 금융사들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함을 인지했음에도 부실 감독 때문에 DLF사태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감사원이 금감원 감사 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제도나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금감원이 금융사의 건전성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집중하도록 감사원이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피해 규모가 크고,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안인 만큼 전문성을 가진 감사들이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1개월을 경과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감사청구 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포함되는데, DLF사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연초 감사원은 연내 감사계획에 금융당국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포함시켰다. 만약, 다음 달 DLF관련 본감사가 시작되면 금감원은 올해에만 감사원으로부터 2번의 감사를 받게 된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금감원 현장 감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본감사와 특별감찰반 감찰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본감사 실시 여부나 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손태승 ‘DLF 중징계’ 집행 정지 신청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불복하는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 징계 취소를 위해 손 회장이 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 손 회장은 전날 전자문서를 통해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5일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최종 통보했다. 하루 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손 회장이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그 근거다.

금감원의 징계 통보에 손 회장 측도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결과가 주총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은평 기자 pepe@

올 프로야구는 신한은행과 함께… 신한은행은 9일 KBO와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 후원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올 시즌 대회 공식 명칭을 ‘신한은행 SOL KBO 리그’로 확정했다. 진옥동(왼쪽 네번째) 은행장이 이날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에서 KBO 정운찬(왼쪽 세번째) 총재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금융위, 규제운영 실태평가 2년째 ‘깜깜이 고시’

‘금융당국 관리·감독’ 용역 평가 결과 민원포털 공시 규정 안 지켜
업계 “공시 투명성 강조하더니… 기업은 단순 실수도 규제 불공평”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서 정해놓은 고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금융규제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2년째 고시하지 않은 것. 금융기관의 공시 의무를 만들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장의 볼멘소리는 더욱 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실태평가 결과를 금융규제 민원포털 등을 통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부기관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 훈령을 지키는지 실태평가 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 결과는 지체 없이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년간 금융위·금감원이 신설·강화(변경)한 명시적 규제, 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에 대해 용역을 받은 외부기관이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살펴보면, 2017년 고시가 마지막이며 2018년, 2019년의 평가 결과는 고시돼 있지 않다.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해당 고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금융위 규제개혁업무 담당관은 “실태평가는 받았지만, 홈페이지 업로드가 늦어진 것”이라며 “오전 중으로 업로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공시의무를 정하고 감시하는 역할인 금융당국이 스스로 규정을 어겼다는 점에서 시장의 실망감은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히 이번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며 투명하고 신속한 공시의무를 더욱 강조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더욱 철저했어야 했다”며 “기업은 단순 실수에도 여러 겹의 규제를 받고 공시 의무를 지는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은행 부실채권 비율 0.77%… 11년 만에 최저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실채권 비율이 1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0.77%로 전년 말 대비 0.20%포인트(p) 하락했다.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6월 말(0.70%)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부실채권이 15조1000억 원 생겼지만, 이보다 많은 18조 원을 정리한 덕이다. 이에 부실채권 비율은 2018년 3분기 말(0.82%) 10년 만에 1% 밑으로 떨어진 이후 6분기 연속 0%대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11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1000억 원(26.6%) 감소했다.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3조1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6000억 원(23.4%) 늘었다.

부실채권 비율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기업여신은 1.10%로 전년 말과 비교해 0.32%p 하락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현안 산적한 금융지주들 코로나 뚫고 ‘주총’ 강행

회장 연임·사외이사 교체 등
안건 많아 예정대로 이달 개최

발열체크·대체장소 준비 등
감염병 예방책 마련 동분서주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변동 현황

지주	현원	임기 만료	재선임	퇴임	신규 선임	여성
KB금융	7명	6명	4명	2명	2명	2명
신한금융	11명	7명	4명	2명	2명	1명
우리금융	5명	1명	0명	1명	2명	0명
하나금융	8명	8명	8명	0명	0명	1명
합계	31명	22명	16명	5명	6명	4명

※출처: 각 금융지주 공시 취합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올해 주주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주총을 4월로 연기해도 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회장연임·사외이사 교체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기 때문이다. 대신 금융지주는 만일의 경우를 고려해 입장 전 발열체크 및 대체장소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는 이달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20일, 우리금융은 25일, 신한지주는 26일에 열린다.

이번 주총은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주총 장소에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밀집하기 때문이다. 연기될 수도 있었지만, 처리할 안건이 많아 4대 금융지주 모두 주총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KB금융 측은 “연결결산 등 주요 경영활동 일정과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고려해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당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소요기간과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도 관계회사들의 결산 및 배당일정, 내·외부 감사일정 및 이사회, 주요 위원회의 개최일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 측은 입장 전 ‘발열체크’를 필수로 진행하고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총 특성상 주주들의 입장을 강제로 제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체 투입되는 인력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입구에는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사전 방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총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주총 장소를 변경할 경우를 대비해 기존 주총 장소 이외의 대체장소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총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생중계 된다. 금융지주 측은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주주들에게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모든 주주에게 서면투표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요 4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모두 재선임됐다.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KB금융·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31명 중 22명이 임기가 만료된다. 이 중 16명이 재선임되고, 5명은 퇴임한다. KB금융은 최장 임기를 다 채워 나가는 사외이사 2명의 후임으로 권선주 전 기업은행장과 오규택 중앙대 경영경제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퇴임자 2명의 후임으로 여성인 윤재원 홍대 경영대 교수와 진현덕 ㈜페도라 대표이사를 선택했다. 기존 사외이사인 필립 에이브릴(BNP파리바증권 일본 이사)은 임기 1년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추천했다.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파견하는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고는 기존 사외이사의 변동은 없었다. 다만, 푸본생명이 지난해 우리금융의 지분 4.0%를 인수함에 따라 푸본생명이 추천한 첨문악 전 푸본생명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우리금융의 사외이사는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나금융은 기존 사외이사 8명 전원이 이번에 유임됐다. 하나금융은 여성 사외이사가 1명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김범근 기자 nova@

〈현대위아〉

국내 車업계, 스마트팩토리 등 잇단 신사업 추진

주총서 사업목적 추가

자동차 업계가 이달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잇따라 선언한다. 자동차 산업이 침체를 맞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제조업을 넘어 미래를 위한 신사업을 본격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차는 19일 주총을 열어 '기타 이동수단 제조 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이는 현대차가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현대차는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과 서비스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차를 비롯해 개인용 비행체(PAV),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한다는 '2025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나란히 '전동화 차량 등 각종 차량 충전사업'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양사는 각각 2025년까지 전기차로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하고, 신차 판매의 25%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는데, 이를 위해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기 위한 결정이다.

올해 주총에서 사업목적 추가한 자동차 관련 기업

회사	추가 내용	목적
현대차	기타 이동수단 제조판매업	스마트 모빌리티 추진
	전동화 차량 등 각종 차량 충전사업 및 기타 관련사업	전동화 차량 충전소 구축
기아차	전동화 차량 등 각종 차량 충전사업 및 기타 관련사업	전동화 차량 충전소 구축
현대위아	정보통신공사업	스마트팩토리 사업 추진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및 관련 충전 인프라 운영업	전기차 활용 물류사업
현대로템	가스시설 시공업, 엔지니어링, 판매사업	수소충전소 등 시설 시공
한국타이어	자동차 경주장 및 주행 체험장 운영업	모터스포츠 사업 운영

※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

현대차 '기타 이동수단 제조' 개인형 모빌리티 생산 염두

현대로템 '가스 시설 시공업' 수소 연료공급 사전작업

車 침체기 '전통' 제조업 혁신

25일 주총을 여는 현대위아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본격화할 목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회사 정관에 새로 넣는다. 스마트팩토리는 분리된 공정을 연결해 어디서든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고,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주는 지능형 공장을 뜻한다. 현대위아는 이미 2018년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IRIS'를 발표하며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든 공작기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기계까지 원격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간 현대위아는 각종 산업박람회에서 IRIS를 선보이며 시장의 반응을 점검했는데, 이번 주총에서 정관 변경으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7일 개최될 주총에서 '자동차 경주장 및 주행 체험장 운영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내년 상반기 충남 태안에 완공될 타이어 성능 시험장을 활용해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대차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들도 사업 다각화로 모기업 지원에 나선다. 철도 차량 제조와 방산이 주력인 현대로템은 가스 시설 시공업과 판매사업 등을 정관에 넣기로 했다. 수소충전소 등 수소공급시설 시공사업에 나서려는 조치다.

이번 정관 변경은 현대로템이 현대차그룹의 수소산업에서 연료 공급 부문을 담당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하고, 2030년에는 연 50만 대 규모의 수소 전기차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올해 초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수소 충전 인프라를 현대로템이 맡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완성차 해상 운송 등 물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현대글로비스도 19일 열릴 주총에서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운영업'을 새로운 사업에 추가한다.

이미 현대글로비스는 SSG닷컴과 한국전력 등 다수의 회사와 손잡고 물류에 전기차를 결합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모기업인 현대·기아차의 친환경 상용차 판매를 뒷받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현대重, 글로벌 5대 로봇기업 도전

산업용·클린용 로봇팀 신설해 이달부터 개발
로봇 사업 부문 '현대로보틱스' 5월 독자 출범

현대중공업그룹이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로봇사업 부문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9일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해 말 로봇부문 산하 '산업용 로봇팀'과 '클린용 로봇팀'을 신설하고 올 들어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라인업 확대와 미래 사업 준비를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중 클린용 로봇은 디스플레이 산업에 특화된 로봇이다. 깨끗한 환경에서 제작된다는 의미로 '클린'이라는 표현을 쓴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신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1월 '모바일 로봇 주행 메커니즘'과 '모바일 서비스 로봇 플랫폼 내재화 기술' 등에 착수한 바 있다.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소형 고속 핸들링 로봇' 개발을 시작했으며, 클린용 로봇의 경우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수요 증대에 따라 LG디스플레이, CSOT 등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초부터 '중대형OLED 반송용 진공로봇 개발'에 돌입했다. 이외 다양한 협동로봇 시리즈 모델들도 연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지주는 로봇사업에 보다 힘을 실어주기 위해 로봇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신규 법인 '현대로보틱스'를 오는 5월 독자적으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회사는 분할 이후 산업용 로봇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물류, 모바일 서비스로봇 등 신사업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2018년 2667억 원 규모였던 로봇사업 매출을 2024년 1조 원까지 늘리고 신규 사업 매출 비중도 30%까지 끌어올려 '글로벌 5대 로봇 종합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전 세계 로봇시장은 2018년 기준 글로벌 4강 기업인 ABB(스위스), FANUC(일본), Yaskawa(일본), KUKA(독일) 등 4곳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지주의 점유율은 3%에 머물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향후 연구개발 투자 강화,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 유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제네시스 GV80 가솔린 2.5 터보 6037만원부터

제네시스가 9일 플래그십 SUV GV80의 가솔린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제네시스는 GV80 가솔린 모델에 신규 2.5 터보, 3.5 터보 엔진을 최초로 얹었다. 이에 따라 제네시스 GV80은 3.0 디젤 모델과 함께 3가지 엔진 제품군을 갖추게 됐다.

2.5 터보 모델(6037만 원 부터)은 최고 출력 304마력, 최대토크 43.0kgf·m의 힘을 내고, 복합 연비는 1리터당 9.7㎞다. 최고 출력 380마력, 최대토크 54.0kgf·m의 힘을 내는 3.5 터보 모델(6587만 원 부터)은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 성능을 갖췄고 복합 연비는 8.6㎞/ℓ다. 두 엔진은 듀얼 퓨얼 인젝션(Dual Fuel Injection) 시스템과 수랭식 인터쿨러(Water Cooled Type Inter Cooler) 등의 기술로 연비 효율과 응답 성능을 높였다.

3.5 터보 모델에 20인치 미쉐린 타이어와 휠, 전륜 모노 블록 브레이크 캘리퍼를 기본 적용해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하고 제동 안정성을 향상했다.

한편, 제네시스 GV80은 지난달까지 누적 계약 2만1000대를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뒤차축 가변형 트랙터 LS엠트론 'MT4' 출시

LS그룹의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전문기업 LS엠트론은 국내 최초 가변형 뒤차축을 적용한 동급 최강 멀티 플레이어 트랙터 'MT4'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MT4는 가변형 뒤차축을 적용한 트랙터다. 농사에서는 재배 작물에 따라 이랑과 고랑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트랙터 바퀴가 지나가는 폭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

MT4는 '뒷바퀴축은 움직일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재배 작물에 따라 뒷바퀴의 폭을 최대 21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다양한 지형에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작업 환경별 폭 넓이에 따라 광폭·소폭의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장점도 크다.

권태성 기자 tskwon@

주총 의결권 위임장 확보 경쟁

'소액 주주' 집 찾는 한진 남매 조원태측 델타항공, 지분 추가

델타항공 14.9% 한도 채워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등 3자 연합이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지난 주말부터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명부상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고 있다.

6일에는 의결권 권유 업무를 위해 상장기업 의결권 위임장 전문대행사를 위촉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주명과 보유 주식 수, 생년월일, 주소 등이 적힌 명부를 들고 일일이 집을 찾아다니며 위임장에 동의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위임장에는 이번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재무제표 승인건을 비롯해 사외이사·사내이사 선임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건, 정관 일부 변경건 등이 건별로 명시돼 각각 찬성과 반대를 표시할 수 있게 돼 있다.

한진그룹에 맞서 3자 연합의 KCGI 측도 최근 위임장 확보를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팀을 꾸린 상태다. KCGI는 공시에 따라 11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에 나선다.

KCGI는 "(한진칼이 추천한) 조원태 후보자는 사익편취 행위로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인하대학교 부정입학 관련 행정 소송 중이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진칼 측의 안건에 반대 의견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 회장의 '우군'으로 알려진 미국 델타항공은 최근 한진칼 주식 54만6575주(지분율 0.92%)를 장내 매수로 추가 취득해 지분율이 직전 보고일의 13.98%에서 14.9%로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지분 15% 초과 시 공정거래위원회 결합신고가 의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지분 확대로 분석된다.

조 회장 측은 누나인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 지분(22.45%), 델타항공(14.9%), 카카오(2%),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3.80%) 등 총 43.15%의 우호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3자 연합은 조 전 부사장(6.49%), KCGI(17.68%), 반도건설 계열사(13.3%)를 더해 37.63%의 지분을 확보했다.

다만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보유한 지분 비율은 각각 조 회장 측 37.25%, 3자 연합 31.98%다. 주주명부 폐쇄 이후 사들인 지분에 대해서는 이달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두 번 접는 폰·슈퍼 전기차…코로나에 가려진 '혁신'

LG V60·화웨이 메이트Xs 등
컨벤션 효과 못보고 온라인 공개
현대차 미래 전기차 밑그림도
소규모 미디어 이벤트로 대체

LG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V60 씽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콘셉트 '프로페시'.

중국 IT기업 TCL의 두 번 접는 폴더블폰 시제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전시회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혁신제품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컨벤션 효과는 정치나 경제 부문 등에서 대형 이벤트를 통해 지지율이나 소비자의 관심을 크게 고조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매년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와 제네바 모터쇼, 세미콘코리아 등이 열리지 않았고, 페이스북 기술 발표회인 F8, 엔비디아 개발자 대회 'GTC', 구글 연례 개발자 대회 '구글 I/O', 부산 모터쇼 등도 취소됐거나 연기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혁신 제품 공개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겨 전시회에서 선보이려던 제품들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LG전자는 MWC에서 공개하려던 스마트폰 V60 씽큐를 지난달 26일 선보였다. LG전자의 올해 첫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다. LG V60 씽큐 핵심 기능은 예상한 대로 'LG 듀얼 스크린'이다. 폰과 같은 6.8인치 화면에는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V60씽큐는 LG전자 스마트폰 최초로 8K 영상 녹화를 지원하며, 최상의 오디오 성능을 위해 4개의 고성능 마이크와 LG 3D 사운드 엔진을 탑재했다.

화웨이는 지난달 24일 스페인 현지에서 온라인 신제품 발표 행사를 하고 두 번째 폴더블폰 '메이트Xs'를 공개했다. 전작과 비슷한 디자인에 힌지 설계 변경을 통해 내구성을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같은 날 소니 역시 MWC에서 발표 예정이었던 '엑스페리아1 마크2'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 제품은 소니 DSLR 알파 시리즈의 기술을 활용하는 사진 촬영에 특화됐다. 삼성전자가 100배까지 확대하는 카메라 렌즈를 갤럭시 S20 울트라에 탑재한 것처럼 카메라를 집중 공략했다.

최근 중국 IT기업 TCL이 두 번 접는 폴더블폰 시제품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3중 디스플레이를 갖춰 앞뒤로 두 번 접을 수 있다. 접히는 방식은 박물관의 브로셔를 접는 것과 비슷하다. 완전히 접으면 6.65인치 휴대폰이지만, 펼치면 10인치 태블릿으로 변신한다. 8인치급 제품인 갤럭시 폴드보다 크다. 물론 접었을 때는 더 두껍다.

현대차는 개막을 사흘 앞두고 전격 취소된 제네바 모터쇼를 대신해 온라인 공개 이벤트 또는 소규모 론칭 행사로 모터쇼를 대신했다. 무엇보다 전기차 콘셉트 '프로페시'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았다. 현대차가 추구할 고성능 전기차의 밑그림인 만큼, 모터쇼 이전부터 주목받았던 차다. 지난해 크로아티아 전기차 업체 '리막(Rimac)'에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던 현대차는 이를 바탕으로 고성능 전기차를 준비해 왔다. 리막은 독일 포르쉐를 비롯해 유럽 자동차 브랜드가 앞다퉈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전기모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춘 업체다.

결국, 현대차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현지에서 소규모 미디어 이벤트를 통해 '프로페시'를 공개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값비싼 소비재인 만큼, 출시 시점과 마케팅 전략 등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며 "일정이 변경되면 출시 전략을 백지부터 새로 짜야 한다. 이후에 출시를 대기 중인 신차는 계절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김준형 기자 junior@

"코오롱인더, M&A 통해 적극 성장"

장희구 대표, 외부 역량 활용 강조
코오롱PI 매각 대금 3000억 확보

장희구〈사진〉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가 기업의 자체 역량은 물론 인수·합병(M&A), 전략적 협력 등 외부 역량을 활용해 적극적인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9일 "기업의 내재적 역량을 활용한 오가닉 그로스(Organic Growth) 기반의 성장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M&A, 전략적 협력 등 외부 역량을 이용한 인오가닉 그로스(Inorganic Growth) 기반의 성장에도 본격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코오롱인더스트리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6일 SKC코오롱PI 지분 매각을 마무리하며 3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 미래 성장사업을 위한 투자의 발판을 마련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SKC코오롱PI 보유 지분 27.03%를 3035억 원에 ㈜코리아PI홀딩스에 양도했다.

SKC코오롱PI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C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립됐다. 폴리이미드필름 시장 세계 1위 기업으로 2014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양사는 작년 하반기에 SKC코오롱PI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랜우드PE를 선정해 매각작업을 진행해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새롭게 확보된 재원을 기존 사업의 고도화와 신규 미래 먹거리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매출 증대로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아라미드 섬유(제품명 헤라크론)와 지난해 5월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가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투명PI필름(CPI)이 우선 투자 대상이 될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 주요 부품 개발과 석유수지 신공정 구축 등에도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사업 포트폴리오도 개선할 계획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파트너십 구축과 동시에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매각 자금 중 일부를 기존 사업 강화 및 신규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AI로 옷 재질 감지 'LG 트롬 세탁기 씽큐' 출시

LG전자는 12일 인공지능 DD(다이렉트 드라이브)세탁기 'LG 트롬 세탁기 씽큐'(모델명 F21VDD·사진)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인공지능 DD세탁기는 의류 무게를 감지한 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LG전자만의 세탁 방법인 6모션 가운데 최적의 모션을 선택한다.

와이파이를 이용해 가전관리 애플리케이션 LG 씽큐에 신제품을 연결하면 세탁기가 건조기에 최적의 건조코스를 설정하는 등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

신제품의 내·외부는 프리미엄 디자인으로 바꿨다. 전면 도어 소재는 일체형 강화유리로 변경, 기존 플라스틱 재질보다 흠집에 강하고 청소 등 관리도 쉽다. 강화유리 색상은 블랙틴트 컬러를 도입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LG U+

U+ VR

LG U+의 5G 대표 콘텐츠답게
또 한 번 세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2020
모바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혁신상

세계 최초 5G VR서비스를 넘어
세계 최고 혁신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인정한 혁신으로
일상을 바꿉니다

U+VR은 VR(가상현실)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놓은 앱 서비스입니다. 압도적인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는 초고화질 3D VR 영상을 비롯해
오직 유플러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점 영상과 공연, 게임, 영화, 웹툰 등 1,700여 개 이상의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구업계 올 주총 키워드는 '신사업·인적쇄신'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가구업계가 분주하다. 올해 업계의 주총 키워드는 '신산업'과 '이사 선임'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계 1위인 한샘은 이달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이익 배당, 이사 선임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샘은 사업 목적에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고용알선업 △방역소독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채용알선과 교육 제공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리하우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올해 1월 한샘은 강승수 회장의 취임 기자회견에서 리하우스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웠다. 리하우스는 가구뿐 아니라 욕실, 창호, 바닥재 등을 포함한 집 전체를 한번에 제안하는 리모델링 사업이다. 한샘은 이 같은 리하우스 대리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리하우스 디자이너(Rehaus Designer· RD)' 2500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RD는 한샘 리하우스 대리점에 소속돼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필요한 고객 상담과 디자인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을 진행하는 홈인테리어 전문가다. 한샘은 현재 1000여 명의 RD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해 신입 RD 1500여 명을 추가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알선·방역소독업 등 추가
리하우스·홈케어 신사업 박차
사외이사에 '삼성' 출신 신태균

'방역소독업'을 추가한 이유는 '한샘홈케어'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서다. 한샘홈케어는 가구, 부엌, 욕실, 가전 등을 케어하는 토털 홈케어 서비스다. 지난해 정관에 렌털임대업과 청소·수리 유지관리서비스업을 추가한 이유도 홈케어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였다. 지난해 12월 한샘은 한샘홈케어 사업을 공식화하며 △가구케어 △키친바스케어 △가전케어 △주거환경케어 △단열상품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 목적에 '식품접객업' 추가
에비뉴 매장에 카페 운영 계획
19년 장수 사외이사 교체 예정

한샘은 이번 주총에서 신태균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한샘의 사외이사는 현재 오윤택, 정일영 이사로 구성돼 있다. 그중 교체되는 인물은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출신인 오윤택 이사다. 오 이사는 2011년 한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돼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 이사가 나가고 삼성 출신 신태균 전 부사장이 선임되면 한샘도 '삼성맨' 출신 사외이사를 추가하는 셈이다.

코로나 여파 '전자투표제' 도입
윤기철 대표 등 사내이사 선임
김개천 사외이사 재선임 추진

현대리바트는 이달 30일 주주총회를 연다. 올해 현대리바트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주주는 20~29일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현대리바트는 공시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밀집하는 행사를 자제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전자투표를 활용한 주주권 행사를 권고했다. 현대리바트는 이번 주총에서 지난해 말 선임된 윤기철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윤영식 현대백화점 경영전략실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윤 실장은 현대리바트 외에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한섬과 현대HCN의 사내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사외이사로는 2018년 선임된 김개천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를 재선임할 예정이다.

에이스침대는 이달 23일 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주총에서 에이스침대는 사업 목적에 '식품접객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에이스침대는 "올해 상반기 내로 오픈 예정인 에이스 에비뉴 청담점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렌드 가구 편집숍인 에이스 에비뉴는 2008년 서울점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지난해 부산까지 총 4개 점이 문을 열었다. 청담점은 5번째 매장이다. 에이스침대도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19년간 사외이사로 일했던 명승진 이사와 이별한다. 에이스침대의 유일한 사외이사인 명 이사는 전 제일은행 지점장으로 2002년 선임 뒤 장기 사외이사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명 이사의 빈자리를 채울 인물로는 김성우 바이레이 기술개발팀장이 후보에 올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멈춰 서는' 타다… '속도 내는' 카카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1개월 뒤 서비스 종료를 알렸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지만 타다 측은 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 조기 종료를 택했다. 이에 한 달 뒤 타다가 사라지는 시장에 플랫폼 모빌리티 업계들이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기존 택시업계와 협업을 추진해 왔던 카카오가 가장 큰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내달 초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알린 상태다. 업계에서는 타다 서비스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타다 베이직이 서비스를 중단하면 전체 사업의 틀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타다 베이직 외 타다 에어, 타다 프리미엄 등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들은 타다 베이직에 비해 이용객과 수익성이 적어 사업을 이어갈 만한 기반이 될 수 없다.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타다 베이직' 내달 초 중단 결정
택시 23만대·가입자 2300만명
카카오, 주도권 경쟁 유리한 고지

이런 가운데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들의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금지법 통과를 촉구해 온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7곳 외에 또 다른 스타트업 등장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 중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택시업계와 가맹 계약을 맺고 11인승 차량을 활용한 '카카오T벤티'를 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 운영방식도 가맹 계약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기여금이나 차량 운영 대수에 제약을 덜 받게 된다. 특히 카카오T택시는 23만 대의 택시 가입자와 2300만 명의 가입자를 이미 확보한 만큼 이를 활용한 서비스 연동도 이어질 수 있다.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큰 타다 드라이버들까지 대거 합류한다면 기사 공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량 임시운행 허가도 받은 상태다. 자율주행 사업까지 진출해 이를 모빌리티와 연계한다면 지금까지 없던 또 다른 서비스가 탄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없지만 타다가 사라지는 시장에서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카카오밖에 없다"라며 "거대한 자본력과 이미 카카오T를 통해 갖춰진 노하우 등을 토대로 시장을 또 한 번 접수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KT, 청각장애인 위한 '나를 손말 영상통화' 출시 KT가 5G 영상통화앱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수어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나를(narle) 손말 영상통화' 서비스를 출시한다. 청각장애인이 KT의 '나를'을 활용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매일 2GB의 전용 데이터를 제공한다. 사진제공 KT

'서울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4개월째 지지부진

서울시가 3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작한 지 4개월이 넘도록 사업자 선정도 못하고 있다. 올초부터 추진한 입찰 공고는 이미 2차례나 유찰돼 현재 3차 공고를 진행 중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가칭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공공데이터를 한 곳의 빅데이터에 저장하는 것으로, 3년간 총 289억 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다. 통합 저장소는 교통·시설·복지 등 시가 보유하고 있는 518종 시스템의 행정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센서에서 수집하는 도시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처리한다. 데이터 용량은 약 4페타 바이트로 1GB 용량의 영화 약 400만 편 규모와 맞먹는 방대한 양이다.

3년간 289억 투입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두 차례 유찰
"경쟁 입찰 유도 공정성 확보"
서울시, 관례 깨고 3차 공고

하지만 이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두 차례나 공고가 유찰됐기 때문이다. 첫 사업자 공고는 올해 1월 14일 마감됐으나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단 1곳뿐이어서 유찰됐다. 지방계약법과 조달규정에 따라 입찰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 조건을 맞춰야 한다. 문제는 이어 진행된 2차 입찰에서도 한 1곳만 참여했다는 점이다.

통상 조달 계약은 두 차례 유찰될 경우 적격 대상자 1곳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진행된다. 하지만 시는 또다시 경쟁입찰 조건을 내세우며 3차 공모를 강행했다. 시는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야 경쟁 우위가 생기고, 공정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경쟁 입찰 유도를 통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하다 보니 3차 공고까지 이어졌다"며 "시 역시 4개월의 기간이 흐른 만큼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번 3차 입찰에서 최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재훈 기자 yes@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신속 지원" 소진공, 전국 센터에 전담인력 추가

긴급안정자금 신청액 3兆 육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쇄도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빠른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및 민원 응대를 위한 추가 지원 인력 41명을 9일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급파했다.

이번 인력지원은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 및 소상공인 대출건수가 많은 상위 센터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총 11명의 자원인력을 추가 배치, 대구·포항·경주·안동센터에서 지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긴급안정자금의 대출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6일 기준 소진공에 접수된 신청금액은 2조9849억 원, 신청건수는 5만7235건에 달했다.

코로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은행을 통한 간접 대출의 형태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담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거나, 은행에서 신용, 부동산 담보 평가를 통해 지원된다.

때문에 중기부와 소진공은 지원 신청건수에 비해 담당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2월 24일 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융자·보증 지원업무가 가능한 16명의 지원인력을 파견한 데 이어, 이날부터는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및 민원 응대를 위한 추가지원인력 41명을 지역으로 급파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6일부터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운영 중이다.

현재 공단 본부 21명이 정책자금 온라인 대응TF팀을 구성, 온라인 확인서 발급에 대한 민원 대응 및 확인서 발급지원 절차를 온·오프라인으로 돕고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예산 운영의 균형을 위해 온라인 확인서 발급의 경우 1일 신청 규모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내에 있었던 원주센터를 방문,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인 만큼, 중기부와 공단 모두 현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갖고 있다"며, "빠르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불편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희 기자 che@

무급 휴직 이어 구조조정까지… 전염병에 사라지는 유통 일자리

롯데하이마트 희망퇴직 신청 마트노조 "사실상 해고 수순"

코로나19에 유통업계 침체 구조조정 확산 가능성 커져

"일자리마저 병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유통업계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데다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하는 점포까지 늘면서 유·무급 휴가를 도입하는 기업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기업까지 등장했다.

특히 오프라인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 언택트(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며 매장을 찾는 발길이 뚝 끊긴 탓이다. 여기에 한국 여행을 금지하거나 자제하는 국가가 늘어나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매출도 눈에 띄게 줄었다. 사실상 고객보다 상주하는 직원이 더 많은 점포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매출 부진으로 유무급 휴가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업이 늘면서 유통업계 직원들은 연봉 삭감과 구조조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00여 개 점포의 폐점 계획을 발표한 롯데그룹은 특히 사정이 심각하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가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9일부터 16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함에 따라 롯데는 물론 유통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바람이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롯데하이마트의 희망퇴직 대상은 25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대리~부장급 직원이다. 대상자 대부분이 현장 근무 직원으로 80여 명 수준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1.1% 급감하자 올해 오프라인 부진점포 11개를 폐점하고, 21개 매장은 통폐합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희망퇴직도 실적 개선을 위한 고정비 절감 차원으로 풀이된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희망퇴직에 대해 문의하거나 제안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시행하게 됐다"며 "100% 자발적 의지를 가진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기에 타인의 권고를 받았다면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롯데쇼핑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8.3% 줄어들자 200여 점포를 폐점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SK증권은 백화점의 경우 향후 5년간 5개 점포, H&B스토어 롭스는 130개 중 20개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마트는 이보다 높은 수준인 125개 중 50개, SSM인 롯데슈퍼는 531개 중 70여 개의 점포가 폐점할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쇼핑은 구조조정에 대해 일축하고 있지만 점포수 급감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마트산업노조 롯데마트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유통업 침체에 따라 점포당 300~5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은 물론 이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상 수만 명의 노동자 일자리가 위협받게 됐다"며 "앞으로 희망퇴직 등 사실상의 해고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롯데쇼핑 측은 폐점 점포 인력을 인근 점포로 재배치해 잡음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희망 퇴직 등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점했던 롯데면세점도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은 크다. 이미 수백억 원대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데다 빅3 외에 면세점들이 줄줄이 유·무급 휴직을 도입하는 상황인 만큼 대기업도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중소·중견면세점인 엔타스면세점은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SM면세점의 모기업인 하나투어 역시 고용유지 지원을 신청해 유급휴직에 들어갔다. 하나투어 계열사인 SM면세점은 고용유지지원 신청 대신 회사 자체적으로 22일까지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휴직 기간은 2주에서 최대 3개월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남주현 기자 jooh@

봄철 미세먼지 걱정 끝 이마트가 가격, 성능, 디자인을 모두 잡은 '일렉트로맨 공기청정기'를 선보인다. 일렉트로맨 공기청정기는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인 '스테파노 지오반노니'가 디자인했음에도 가격이 15만9000원으로, 유사 상품보다 30% 저렴한 수준이다. 사진제공 이마트

설화수, 美 주요 도시 세포라에 입점 확대

온라인 세포라닷컴서 매진 줄이어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가 북미 진출을 확대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가 미국 주요 도시 세포라 매장과 세포라닷컴에 입점해 북미 시장 진출을 가속한다고 9일 밝혔다. 설화수는 2010년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뉴욕을 비롯한 미국은 물론 캐나다 주요 도시 최고급 백화점에 입점하며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전역에 46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세포라(Sephora)는 미국 뷰티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설화수가 미국 세포라에 입점한 배경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 미국 럭셔리 스킨케어 시장 성장세와 웰니스 뷰티(wellness beauty, 건강한 아름다움) 트렌드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설화수는 올해 1월 온라인 세포라 닷컴에 16개 제품을 론칭했고, 베스트셀러로 구성된 트라이얼 키트(trial kit), 순행클렌징오일, 탄력크림 등이 조기에 동나는 성과를 올렸다. 3월부터는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 도시 31개 세포라 매장에 정식 입점해 제품을 선보인다.

설화수는 미국 럭셔리 스킨케어 시장에서 차별화된 브랜드와 제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윤조에센스를 비롯해 웰니스 뷰티 트렌드에 걸맞은 제품과 한국 전통 색채를 담은 다양한 구성도 함께 선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 대표 럭셔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디지털 채널 성과도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박미선 기자 only@

'캘리스코' 구지은 대표, 정용진 손 잡았다

구지은

정용진

'오빠'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과 '식자재 공급 중단' 갈등 불거져
'남매경영' 대신 '사촌경영' 선택… 신세계푸드와 업무협약 체결

외식기업 캘리스코가 '적과의 동침'을 택했다. 아워홈의 관계사인 캘리스코가 새 식자재 공급파트너로 경쟁사인 신세계푸드를 선택하자 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불거진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고 분석한다.

구본성 부회장이 이끄는 아워홈은 지난해 8월 구지은 대표가 이끄는 캘리스코에 대한 식자재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 캘리스코는 법원에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해 아워홈은 올해 4월까지 캘리스코에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돼 있었다.

캘리스코는 아워홈의 외식사업부가 분사한 기업으로 현재 아워홈의 관계사다. 아워홈 부사장을 지낸 구지은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구 대표는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이자 아워홈 창업주인 구자학 회장의 셋째 딸이다.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과는 남매 사이다.

캘리스코는 5일 서울시 성동구 신세계푸드 본사 대회의실에서 신세계푸드와 식자재 공급 및 제품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신세계푸드와 캘리스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 간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카레, 미소, 소불고기, 드레싱, 전처리 채소 등 전용 식재료의 공동개발을 통해 신세계푸드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캘리스코는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업계에서는 양 사의 협약이 단순한 시너지 효과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구본성 부회장이 아워홈 경영에 참여한 이래 구지은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앞서 아워홈의 공급 중단 통보에 캘리스코가 신세계푸드와의 협력으로 맞불을 놓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구지은 대표가 식자재 공급 기업 가운데 신세계푸드를 선택한 것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신세계푸드는 정용진 부회장이 이끄는 기업 중 하나다. 정 부회장과 구 대표는 이종사촌 지간으로 구 대표의 어머니인 이숙희 여사는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언니다.

아워홈과 신세계푸드는 급식과 식자재 부분의 라이벌 기업이기도 하다. 구본성 부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의 사촌 간 대결구도에 구 대표가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 대표가 '남매 경영'을 포기한 대신 '사촌 경영'을 택했다는 것.

다만 캘리스코 측의 공급사 교체는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구 대표는 2009년 아워홈 외식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캘리스코를 설립한 뒤 줄곧 아워홈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아 왔다. 이후 구 대표가 아워홈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자회사인 캘리스코로 자리를 옮기며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발발했고, 결국 아워홈이 지난해 캘리스코에 대한 식자재 공급 중단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캘리스코를 이끄는 구 대표의 입장에서는 먼저 손을 놓은 아워홈을 대체할 기업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아워홈이 가장 껄끄러워하면서도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협력사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캘리스코는 신세계푸드와의 계약은 아워홈과의 분쟁과 상관없는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업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국내 위주의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며 첫 해외 진출 브랜드로 카츠카페 '히바린'의 뉴욕 매장을 연내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캘리스코 관계자는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간편식 수출도 준비 중"이라며 "국내 대표 식자재 유통기업인 신세계푸드와의 업무 체결은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처 확보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및 신사업 확장 등 여러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캘리스코는 돈카츠 브랜드 '사보텐', 순수 국내 카츠카페 '히바린', 캐주얼 멕시칸 푸드 '타코벨', 모던 한식 브랜드 '반주' 등 4개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며 2019년 기준 연간 88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외에 사보텐 돈카츠 제품과 소스류 등을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며 가정 간편식 시장에도 발을 들여놓은 상태다. 간편식 매출은 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8분의 1 수준을 차지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펭수 세트·배달 서비스까지 편의점, 화이트데이 마케팅

주요 편의점들이 이색 마케팅으로 화이트데이 프로모션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흥행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밸런타인데이 때 좋은 성과를 올린 만큼 대목을 놓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GS25는 화이트데이 핵심 키워드로 유튜브와 팬슈머(팬+컨슈머)를 선정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내놨다. 대표상품은 펭수의 이미지가 상자에 디자인된 '화이트데이 펭수세트 3종'이다. 한정수량 8만 개 중 80% 이상이 이미 판매 완료됐다.

CU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손잡고 사랑의 배달부 콘셉트의 컬래버 상품 '러브 딜리버리 박스'를 9일 업계 단독으로 출시했다. CU 고객들은 약 30여 종의 화이트데이 기획 상품들을 배달로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츄파춥스 구매 고객에게 뉴트로 콘셉트의 황도, 백도 패키지를 증정한다. 이마트24는 '와인'과 '주얼리'를 테마로 화이트데이 행사를 전개한다.

남주현 기자 jooh@

‘코로나 공포’ 베팅한 개미, 반대매매·공매도에 ‘덜덜’

개인투자자 저가 매수에 신용거래융자 ‘10兆 육박’
外人·기관 공매도 평균 거래대금 5047억 전체 49%
반대매매 투매성 물량 나오면 하방 압력 더 커질 듯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 공포에 떨고 있다. 반대매매 우려에 공매도 역시 급증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키우는 모양새다.

◇신용잔고 10조 원 육박… 개인 ‘사자’ 독주 =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일 기준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9조9968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1일 10조 원을 돌파한 이후 10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4일부터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

유가증권시장의 신용거래 잔고 변동폭은 크지 않았지만,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잔고는 크게 증가했다. 5일 기준 코스닥 신용거래 잔고는 5조4930억 원을 기록했는데, 24일(5조8145억 원)과 비교하면 약 3200억 원가량 자금이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일시적 조정으로 판단한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 저가 매수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초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은 각각 6조 원, 3조 원을 팔아치웠지만, 개인은 8조 원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는 향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해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빚을 내 사들인 주식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잠재적 반대매매 물량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반대매매는 주식 평가액이 증거금 밑으로 떨어질 때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자금을 회수하는 청산 절차를 의미한다. 신용거래를 사용한 고객계좌에서 2회차 담보비율 부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담보비율 부족 3영업일에 강제로 주식을 매도한다.

실제 반대매매 역시 급증했다. 2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8.0%까지 치솟았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165억700만 원으로, 2018년 6월 20일(173억 원) 이후 최대치 수준을 기록했다. 5일 기준으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86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 역시 고비라고 지적했다. 9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1950선까지 급락한 데 이어 조정폭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개인투자자가 외인, 기관 물량을 받는 상황에서 반대매매로 인한 투매성 물량이 나오면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유가증권 내 신용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디피씨(11.84%)다. 이어 한창제지(11.27%), 써니전자(10.78%), 동원수산(9.78%), 한창(9.74%)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이 테마주로 급등한 기업이다. 코스닥 내 신용비율이 높은 기업은 에이텍(12.13%), 미코(11.74%), 덱스터(11.72%), 포비스티앤씨(11.71%), 우수AMS(11.17%), 에스코넥(10.71%) 등이다.

◇공매도는 ‘방긋’ = 반대매매 우려에 더해 공매도 급증도 증시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월 코스피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091억 원으로, 전년 동기(3190억 원)보다 37.34%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증시에 본격적으로 미치기 전인 1월 평균(3965억 원)도 28.4% 웃도는 수준이다.

코스닥 시장 공매도 증가세는 코스피보다 더욱 가파르다. 2월 한 달 공매도 거래 평균 금액은 1555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874억 원)보다 48.9% 높았다.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가 공매도 거래금액 상승을 주도적으로 견인했다. 2월 외국인 투자자의 평균 거래대금은 2541억 원으로 전체 49.9%, 기관투자자는 2506억 원으로 49.2%를 차지했다.

3월 들어서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증가세다. 특히 이번 달 들어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베팅이 거센 양상이다. 2월까지 2000억 원 중후반대 수준이었던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액은 이번 달 들어 훌쩍 뛰며 외국인 공매도 금액을 넘어섰다. 2% 넘게 코스피가 급락했던 6일에는 4500억 원을 공매도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기자 ljh@

OPEC 감산 합의 불발… 원유ETN·ETF ‘폭락’

2주 새 44% ↓… 투자금 ‘반토막’

유가 반등에 베팅한 개인투자자들이 눈물 짓고 있다.

석유수출기구(OPEC)의 원유 감산 합의를 앞두고 유가 상승에 연동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적극 매수했지만 기대와 다른 합의 불발에 투자금 절반이 날아간 상황이다.

9일 오후 4시(한국시간) 기준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27.33% 하락한 3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WTI 유가는 전 거래일인 6일에도 41.28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하루 만에 10.06% 급락했다.

OPEC 회원국 및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는 6일 추가 감산 협상에 실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로 공급을 줄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러시아 반대로 협상이 무산됐다.

원유 관련 ETN·ETF 최근 2주간 수익률
※ 2월 25일~3월 9일

상품명	수익률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48.7%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52.3%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	−56.4%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54.6%
미래에셋 원유선물혼합 ETN(H)	−38.4%
신한 WTI원유 선물 ETN(H)	−38.2%
대신 WTI원유 선물 ETN(H)	−38.1%

※출처 : 한국거래소

앞서 개인투자자들은 감산 협의에 기대를 걸고 유가 상승과 연계된 원유ETF·ETN을 대거 사들였다. 지난달 25일부터 6일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관련 10개 상품을 992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의 경우 이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138억 원으로 연간 평균(31억 원)과 비교해 훨씬 활발한 거래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예상 못한 유가 폭락에 손실이 급속도로 불어났다. 이 상품들은 최근 2주간(지난달 25일~9일) 평균 44.16% 하락했다.

특히 유가의 1.5~2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ETN의 경우 반토막이 났다.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은 -48.65%,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ETN’은 -52.30%,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은 -56.35%,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은 -54.56%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사모펀드 신규 설정액 전년比 22% ‘뚝’

잇따른 펀드 환매 연기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땅으로 떨어졌다.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신규 펀드수와 설정액이 급감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월 기준 사모펀드 신규 설정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30% 급감해 6조3103억 원을 기록했다. 라임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알펜루트자산운용, KTB자산운용이 잇따라 펀드 환매를 연기하면서 사모펀드 시장이 빠르게 위축된 영향이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원인이 됐던 복층 투자구조(모·자·손 구조)에 대한 모티터링이 강화됐다”며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금융당국 감독 및 검사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밝혔는데 사모펀드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연초 이후 신규 설정된 사모펀드는 △파인밸류자산운용 ‘파인밸류POSTIPO 1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타이거자산운용 ‘타이거목표달성형TARGET4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지안자산운용 ‘지안Sequenc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C’ △엘비자산운용 ‘엘비24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등 37건이다.

올해 설정액(6일 기준)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으로 재간접펀드의 급감으로 68.05% 줄었다. 이어 위너스자산운용(-46.12%), 씨케이골디락스자산운용(-43.34%), 케이에스자산운용(-39.03%), 라임자산운용(-38.89%) 등이 뒤를 이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금호타이어, 3년 만에 적자탈출 '코로나19' 여파로 제동 걸리나

금호타이어가 매출 감소에도 비용을 더 큰 폭으로 줄여 3년 만에 적자에서 탈출했다.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완성차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됐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2019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3692억 원으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73억 원으로 전년 -789억 원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번 적자 탈출은 '불황형 흑자'로 해석된다. 매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 절감에 집중해 수익성을 개선했다. 회사 측은 "매출원가 및 판관비 감소로 영업이익 15% 이상 변동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2018년 중국 더블스타와 인수합병한 이래로 수익구조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2014~2016년 평균 매출원가율은 73%이지만 적자를 기록한 2017~2018년의 평균은 84% 수준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 이에 더블스타와 원자재를 공동구매하면서 비용 절감 타개책을 마련했다. 원재료비에서 천연·합성고무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가량이다.

최근 3년간 1톤당 천연·합성고무의 가격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4106억 달러→2018년 3721억 달러→2019년 3446억 달러로 감소 추세다. 또 합병 이후 중국 공장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덜 수 있었다.

금호타이어 재무지표 추이
(단위 : 억 원, 연결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2조9472	2조8764	2조5587	2조3692
영업이익	1201	-1572	-789	373
부채비율	322%	354%	198%	193%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원자재 비용 절감 등 수익성 개선 작년 영업익 373억 '불황형 흑자'
완성차 생산 감소, 수요 부진 우려

이에 따라 작년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지만, 매출원가가 더 큰 폭(15%)으로 줄면서 매출총이익은 27% 개선할 수 있었다. 또 판관비 역시 3% 감소해 작년 2분기에 이은 분기 흑자전환에도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전방산업이 침체하자 실적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주요 완성차 공장 가동률도 떨어진 상황이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작년 현금성자산 1251억 '7배 껑충'

상장사 재무 분석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지난해 현금자산이 늘어난 반면 사채와 차입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의 지난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2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배 증가했다.

과거 5500억 원 규모이던 단기금융상품이 3200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유동자산은 소폭 감소했지만, 그 대신 현금이 유입되면서 현금자산도 늘어났다.

유형자산 취득 역시 전년과 비교해 그 규모가 줄어들면서 1000억 원 수준의 현금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현금자산이 증가한 가운데 사채와 차입금은 감소했다.

삼성바이오의 지난해 사채 및 차입금은 63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83% 줄었다. 이 중에 유동성을 띤 단기물은 3866억 원에서 4017억 원으로 다소 늘었지만 장기물이 4861억 원에서 2362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며 전체 규모 역시 감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현황
(단위: 원)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

사채·차입금 전년比 37% 줄어 공장 가동률 상승 등 올 실적 기대

삼성바이오의 사채와 차입금의 상환 규모는 올해 4000억 원이 조금 넘는 가운데, 내년엔 1617억 원 수준으로 크지 않다. 2022년 예정된 상환 계획은 없으며, 2023년 이후의 상환 규모 역시 700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삼성바이오의 유동자산이 1조3000억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환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4분기 2공장 가동률 상승과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9% 증가한 7016억 원, 영업이익은 64.8% 증가한 917억 원이다.

삼성바이오 자체 실적 외에도 관계기업의 성장이 돋보였다.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얻은 지분법이익은 729억 원으로, 1293억 원의 손실을 입었던 전년과 대비된다. 아키젠 바이오텍 리미티드(Archigen Biotech Limited)로부터 150억 원 수준의 손실을 인식했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로부터 881억 원의 이익을 올렸다.

올해는 공장 가동률 상승과 더불어 신사업까지 추가되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CMO(위탁생산) 사업은 올해 1, 2공장이 최대 가동률에 도달한 가운데 3공장 가동률이 30% 수준까지 상승하며 실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신사업인 CDO(위탁개발)와 CRO(위탁연구) 비즈니스는 향후 고객사 확대에 따른 실적 기여도 상승 및 CMO 파트너로의 연계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3년 만에 흑자… 이자비용 웃돌지가 '관건'

한계기업 돋보기

HSD엔진

HSD엔진이 올해 '한계기업'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3년 만에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외부 차입 규모가 예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영업이익 규모가 이자 비용을 웃돌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HSD엔진은 1999년 설립된 선박용 엔진 및 발전용 디젤엔진 제조업체다. 당시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 2001년 두산그룹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면서 두산그룹에 편입됐으며 2011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후에는 그룹 내 유동성 문제로 2018년 최대주주였던 두산중공업이 보유 지분을 소시어스-웰투시 컨소시엄에 매각함에 따라 두산 계열로부터 분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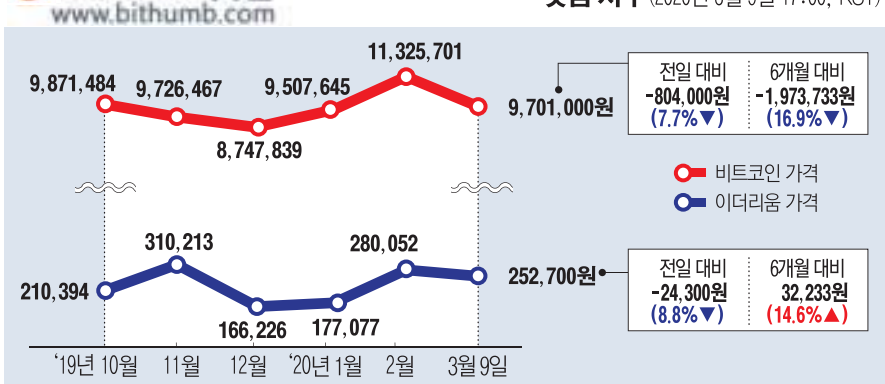
HSD엔진의 매출은 선박용 엔진 80%, 디젤발전용 엔진과 엔진 부품 등이 20%다. 글로벌 선박용 저속엔진 시장에서 생산능력이 현대중공업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매출 비중이 50% 수준을 차지하는 등 안정된 사업기반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조선산업의 업황 부진에 실적은 대체로 저조하다. 이에 중국 조선사 등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친환경·고효율 엔진 및 기자재 생산 등 제품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수주 부진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연료 시장이 LNG뿐만 아니라 LPG 추진으로 달라지는 것에 대응해 관련 엔진의 생산도 준비함에 따라 올해부터 매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올해 흑자 규모가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예측하는 HSD엔진의 올해 컨센서스는 매출 8561억 원에 영업이익이 202억 원이며 영업이익률로는 2.4%다. 이보다 낮게는 134억 원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2020년 3월 9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37,900	-49,000 (12.7%▼)	모네로	69,200	-8,200 (10.6%▼)
리플	256	-23 (8.2%▼)	비트코인골드	11,170	-1,920 (14.7%▼)
라이트코인	61,750	-9,000 (12.7%▼)	이더리움 클래식	8,265	-780 (8.6%▼)
대시	90,900	-11,400 (11.1%▼)	퀀텀	2,384	-207 (8.0%▼)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대한민國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캠코가 국민과 기업의 재기를 돕고
국가자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www.kamco.or.kr

"총회 열어야 상한제 피하는데…" 한숨 커진 재개발 조합

유예 신청 기한 한달 반 남아 관리처분계획변경 시급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에 체육관 등 총회 장소 못잡아
은평·동작구, 기한 연장 건의… 국토부 "사태 지켜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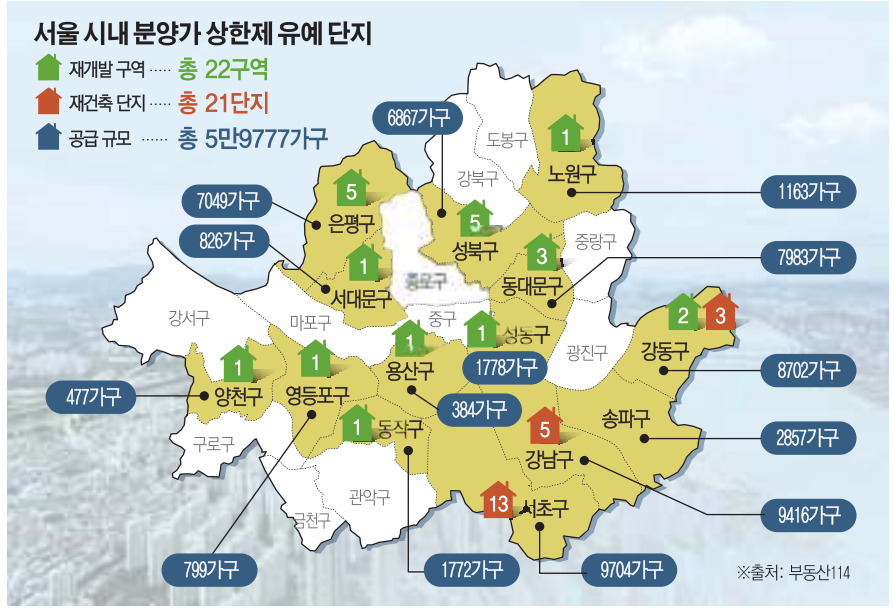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못 열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한 연장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 은평구와 동작구는 지난달 말 국토부에 4월 28일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자치구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에도 총회 등을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무리한 총회 강행으로 조합원 여러 명이 모였다가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인가 신청을 한 정비사업장이 올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선 조합원 20%가 직접 출석한 총회에서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해야 한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5930가구)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장에선 조합원이 1000명 이상 모여야 한다는 뜻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장은 서울 시내에서만 43곳, 5만9777가구로 추산된다. 하남시와 광명시, 과천시 등 경기도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하면 총회를 서둘러야 하는 정비사업장은 더 늘어난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에도 주택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의를 통과해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정비사업장에 남은 시간은 한 달 반 남짓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가 현재보다 20~30% 낮아질 것으로 추산한다. 그만큼 분양 수익은 줄어들고 조합원이 져야 할 분담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도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작구 흑석3구역은 구청의 연기 요청에도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 변경 계획을 의결했다. 노원구 상계6구역도 26일 총회를 강행했다.

아직 총회를 열지 않은 사업장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선 강행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총회를 열기로 한 은평구 수색7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현재로선 총회를 열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서면 결의서를 많이 받아서 의사(議事) 정족수를 갖추고 직접 참석해야 하는 최소 인원인 20%만 마스크를 쓰고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를 강행하려는 정비사업장엔 또 다른 고민이 있다. 총회를 열 만한 장소가 마땅찮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장 사이에서 총회 장소로 인기가 높던 장충체육관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관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학교 강당을 빌리려 했는데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철거 현장에서라도 총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합과 지자체 원성이 높아지자 국토부도 유예기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유예기한 연장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은 맞다"며 "현재 실무진 선에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서울시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한 연장 여부를 타진했을 때만 해도 국토부는 "연장은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선 주택법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통상적으로 시행령을 바꾸는 데는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두 달가량이 걸린다.

관가 안팎에선 지금 같은 위급 상황에서 중간 과정을 최대한 생략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다만 하 정책관은 "아직 윗선까지 논의된 내용은 없다"며 "유예기한이 연장될지 안 될지 얘기하는 건 지금으로선 이르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신반포15차' 수주전 나선 3社 속내는

삼성 '래미안' 브랜드 건재함 입증
대림 '강남 정비사업 1위' 굳히기
호반 '지역·중견건설' 꼬리표 떼기

'복귀전' 삼성물산, '강남 굳히기' 대림산업, '지역 건설사 꼬리떼기' 호반건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 수주전이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호반건설 등 '3파전'으로 치러진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9일 마감한 시공사 재선정 입찰에 삼성물산, 대림산업, 호반건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도 참여했으나 입찰에는 나서지 않았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은 지하 4층~지상 35층짜리 6개동에 아파트 총 641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는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신반포15차는 강남 '알짜' 재건축 단지로 꼽히지만 이전에 시공사로 선정됐던 대우건설과 공사비 책정 등을 놓고 송사를 벌이는 등 변수 역시 많은 사업지다. 이에 당초 시공사로 나서려던 건설사들도 막판에 발을 빼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입찰을 결정한 3개 건설사는 신반포15차를 수주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가장 먼저 입찰보증금 500억 원(현금 300억 원+이행보증보험증권 200억 원)을 납부한 삼성물산은 신반포15차 수주를 통해 정비사업 시장에 복귀를 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2015년 서초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놓은 뒤 무려 5년 만에 얼굴을 내민 것으로, 이번 수주를 통해 '래미안' 브랜드의 건재함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만약 수주전에서 실패할 경우 '래미안' 브랜드에 타격이 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수주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신반포15차 위치도

대림산업도 신반포15차 수주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림산업의 고급 브랜드인 '아크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근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의 성공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이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권을 거머쥘 경우 반포동 일대에 아크로 리버파크와 아크로 리버뷰 등과 함께 약 3000가구 규모의 아크로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면서 강남에서 '정비사업 1위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앞서 전략적 사업지로 총력을 기울였던 용산구 한남3구역에서 과열 수주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반포15차 수주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호반건설은 신반포15차 수주를 통해 '지역 건설사'라는 꼬리를 떼고 동시에 브랜드 파워도 드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몇 년간 거침없는 성장세를 보이며 시공능력평가 10위까지 올라선 호반건설은 지난해엔 건설업황 부진과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호반건설은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견건설사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해 서울 정비사업장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에 호반건설은 강남 재건축 사업지 수주를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선영 기자 moo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수상명·교과명·특기사항 공개

대입 학생부 블라인드 '반쪽' 논란

외고·과학고 등 유추 가능

올해 대입 수시부터 도입될 예정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블라인드' 평가에 수험생의 이력 등을 예상할 수 있는 정보들이 그대로 공개돼 '반쪽'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대입 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고교 블라인드 평가가 9월 수시부터 적용된다.

고교 블라인드 평가에는 수험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진, 고교명·수상기관명·봉사주관기관명 등이 모두 가려지고 '학생부 식별번호'가 부여된 학생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과 원서접수 기관을 통해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공공연한 고교등급제 등 대입 과정에서의 출신 학교 후광효과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수상명·교과명 등은 가려지지 않는다. 계획(안)을 보면 수상경력 표시란에 상장 수여기관은 비공개하지만, 수상명은 300자 이내로 기재하도록 했다. 교과학습 발달사항에서도 과목 편제명과 교과명, 재적수(이수자 수)는 각각 90자와 60자, 4자 이내로 작성할 수 있다. 특기사항도 창의적 재량활동 사항과 특별활동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등 총 3개 부문에서 각각 2만 자 이내로 공개한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대입전형(학생부) 온라인 제공 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수험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은 비공개되지만 고등학교를 예상할 수 있는 수상명, 교과명, 재적수는 공개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교 블라이드 평가 제도가 이대로 시행될 경우 특정 정보만으로 고교 유형을 추측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과학고는 교육 과정상 필수과목으로 '고급과학', '고급물리' 등을 편성하고 있다"며 "외고와 국제고도 수업시간 절반이 '제2외국어'와 '외국어' 등으로 채워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학생부의 교과이수과목 정보나 동아리 활동만 봐도 외고, 과학고, 영재학교 등 학교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며 "블라인드 서류 평가 제도의 정책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기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수험생 인적사항 등이 가려지더라도 교사의 기술방향·뉘앙스에서 학교 유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적수(이수자 수) 공개는 소규모 학교의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임 대표는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학생 수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면서 "고교 유형을 교과목과 특기사항에서 파악 후 상대적으로 전체 학생 수가 적은 학생 같은 경우 취약한 학교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부 온라인 제공 방식에 대해 사전 점검(모의 테스트)을 8월께 진행할 예정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승리 입대…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해외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이날 현역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

'삼성 노조와해' 항소심 첫 공판 법리공방

검찰 "법인 무죄 선고는 잘못"
변호인 "용역 동원 폭력 없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상훈(사진·65) 전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6) 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은 이 전 의장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며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 의장은 각 사업부가 필요한 공통적 지원 업무를 담당했고, 이는 실질적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도 그린화 작업을 인정한 것에 비춰보면 공모관계를 부인한 원심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삼성그룹이나 삼성전자가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지휘·주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망 사고와 파업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협력사 문제에 관여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한 노조 탈퇴 종용, 단체교섭 지연 등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용역업체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용노조를 설립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저작 매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저작 매체가 있던 인사팀 사무실이나 자동차 트렁크는 다스(DAS) 영장에 적시된 수색·검증 장소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다스 사건과 무관함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이를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檢 '코로나 19 부실대응' 박능후 고발 사건 배당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중국인 입국을 제때 막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며 고발당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박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2부는 식품 및 의료범죄 전담부서다. 이 부장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코로나19 대응 TF 사건대응 팀장을 맡고 있다.

법세련은 4일 "박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격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이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과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것의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틀 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코로나 확산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국민이 바이러스 숙주인 것처럼 표현했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박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됐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3월호 발매

COVER STORY 하우징의 품격을 짓다
PART1. 1인 가구 vs 다세대 가구 – 따로 또 같이, 가구별 하우징 플래닝
PART2. 시니어 하우스를 가다 – 품격을 담은 노후 보금자리
PART3. 집에 대한 고민들 – 늘어나는 세금부담 "넘겨라!"
PART4. 노블 하우스 함께 짓다 – "나이 들면 한집에서우리끼리 살아볼까?"
PART5.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테리어 – 클래식한 분위기로 공간을 꾸미다

고수열전
'약육강식' 믿을 거 없다
동화 작가 권정생(1937~2007) 선생에겐 남이 없었다. 사람은 물론, 보잘것없는 쇠뜨기풀이나 강아지 똥조차 그에겐 남이 아니었다. 모든 존재를 남으로 바라보지 않았기에, 남의 일이라는 것도 없었다. 남의 일도 내 일로 알아 남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가뭄이 길었던 어느 여름날, 벌겋게 타들어가는 벼를 바라보던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저것들이 얼마나 목마를까?" 그런 중얼거림이 새 나왔고, 이런 눈, 이런 연민, 이런 삶의 태도가 어떻게 가능할까.

선라보가 만난 사람
"제2의 인생은 아내와 함께" 야구 감독 유승안
원만해선 남편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편입니다 '한지 같은 여자' 국민가수 김상희의 삶과 사랑
옳은 것을 알리고 정의롭게 살다 변호사 박연재

Living & Home 모던하고 심플하게, 홈 오피스 잇 아이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어쩐지 무든 도전하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몽몽 샘솟는다. 따뜻한 봄을 맞아 책장의 묵은 먼지도 털고 책상도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져보자. 편안한 느낌을 주는 우드나 베이지 톤, 또는 블랙 포인트 아이템으로 모던하면서도 심플하게 홈 오피스를 꾸며보면 어떨까?

생생 부동산 현장 주택은 괜찮은데, 상가는 '글쎄…'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못지않게 핫한 지역이 있다. 강서구 마곡지구다. 마곡지구는 지금까지 드러난 호재에 최근 또 다른 호재가 겹쳐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마곡지구가 품은 부동산 호재와 투자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암과 성인병 예방하는 브로콜리 활용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놀자
정성진 KB국민은행 양재PB센터 팀장
신흥국 투자로 저금리 넘는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G밸리 교통 대책 마련… 삶의 질 높인 자족도시 만들 것"

서울 동맥을 가다 ❼

유성훈 금천구청장

올 예산 5279억 역대 최대
구민 삶 변화시키는 데 집중

가산동 G밸리 10만 명 종사
인프라 부족해 '도시 공동화'
지방정부에 관리 맡겨야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3일 서울 금천구청장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금천을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자족도시를 목표로 구민에게 투자하겠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은 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성장을 넘어 성숙한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올해 재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구청장은 그동안 금천구를 서울의 '관문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힘썼다. 금천구는 1970년대 시작된 개발억제 정책으로 50년간 서울의 변방으로 분류됐다. 유 구청장은 "지난해 시계경관지구를 폐지하고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해 1단계 사업지로 시흥동 석수역 일대를 선정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종합 재생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구청장은 올해 구민 삶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천구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유 구청장은 "확장 재정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행복한 자족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구민 삶을 변화시키는 5대 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천구는 맞춤형 평생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687억 원을 배정했다. 유 구청장은 "첫째 아이 출산 축하금, 아이 돌봄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영유아 보육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700억 원을 편성했다"며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50플러스센터·어르신복지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개관, 보훈회관 설립·보훈 예산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270억 원이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금천을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도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금천구는 올해 교육 분야에 83억 원을 투입해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무상교복 지원 △금천형 진학진로지원센터 조성 △클린스쿨(미세먼지 제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유 구청장은 "4대 체험학교를 비롯한 미래형 융합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맞춤형 대입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교육 환경과 지원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문화파크·서서울미술관 건립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 인프라와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천구는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그린 사회간접자본(SOC)과 생활 SOC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366억 원을 편성해 독산로 지중화사업, 시흥4동주민센터 신축, 독산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우시장 그린푸줏간 건립, 금하마을·새뜰마을 등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가산동생활권 공원, 호암산자락 방수설비공원 등에도 123억 원이 투입된다.

유 구청장은 가산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와 관련해 "지방정부로의 재량 부여·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G밸리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관리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산업단지의 발전 전략과 경쟁력 강화에 지역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G밸리의 시급한 문제를 풀고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 금천구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1967년 국내 최초 수출산업공업단지로 탄생해 구로공단으로 불리며 섬유·의류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성장한 G밸리는 1990년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된 후 지식산업센터, 아웃렛 등 제조업·IT·지식기반산업의 집적지로 변모했다. 8300여 기업이 위치해 약 1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금천구는 G밸리 지역적 특성을 살려 관계 기관, 기업과 연계해 다양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차산업 선도기지 역할을 담당할 '혁신성장밸리' 도 조성 중이다. 올해에도 창업 지원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메이커스 페이스의 창업 지원 기능을 보완할 방침이다.

하지만 G밸리는 발전 속도에 비해 전반적인 산업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게 유 구청장의 설명이다.

유 구청장은 "G밸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 정체"라며 "아파트형 공장 입주가 시작된 1997년과 비교해 현재 종사자 수는 4.5배, 기업체 수는 29배 증가했고 G밸리 2~3단지에 101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됐거나 건립 예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녹지 및 주거·편의시설이 부족해 저녁이 되면 근로자들이 빠져나가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며 "금천구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확충,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등 G밸리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서울시 "대구 거주 숨긴 백병원 확진자 법적조치 검토"

코로나19 정례브리핑 "확진자 10명 늘어 130명"

서울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0명으로 증가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9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지역 확진자는 전일 대비 10명 늘어난 13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발생한 신규 환자에는 서울백병원에서 대구 거주 사실을 숨겼던 79세 여성, 생후 4주 된 신생아를 포함한 동대문구 일가족 4명, 확진 판정을 받은 동대문구 동안교회 전도사(5592번 환자)와 접촉한 27세 남성 2명, 25세 여성 1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시는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백병원 확진자와 관련해 "이 문제는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조사가 되면 법률자문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나 국장은 다만 "코로나19와는 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며 "기존에 거짓말을 했던 신천지 신도들이나, 검사를 빨리 받을 목적으로 은평성모병원에 방문했다고 속인 강남구 확진자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서울백병원은 외래와 응급실이 폐쇄된 상태로, 입퇴원과 병원 내 환자, 직원의 이동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며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 3명은 1인실로 격리조치됐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백병원 내에 시, 중구보건소, 병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역학조사관이 CCTV를 통해 환자 동선 파악과 접촉자 조사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말 사이 7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 동대문구와 관련해 "이미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해뒀던 범위 안에서 발생했다"며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성동구 '스마트 보안등' 250곳 확대

서울 성동구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보안등'을 올해 250개소 이상 확대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 보안등'은 기존 보안등에 LED 조명을 설치하고, IoT 기능이 탑재된 양방향 점멸기, 미세먼지 센서, 고보조명 기능을 포함했다. 특히 양방향 점멸기 기능을 통해 보안등 고장 여부를 관리부서에서 실시간 체크 및 즉시 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그동안 보안등 고장관리를 구민들의 민원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니 고장 시 신속한 정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며 "보안등에 스마트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함으로써 동작 상태를 관리자가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해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2018년 송정동과 성수동 주택가 일대에 스마트 보안등 50개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마장동 도시재생사업지구 일대에 스마트 보안등 240개를 설치했다.

올해는 성동구 주민참여 예산이 반영된 왕십리도 선동 일대의 LED 보안등 개선 사업과 연계해 양방향 점멸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초등학교 통학로, 주택가 어두운 골목길 등 보행 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250개 이상의 스마트 보안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 보안등에 IoT 기술을 활용해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5·18 40주년 기념사업' 서울-광주시 공동 추진

코로나19 여파로 화상 협약

박원순(왼쪽 세번째) 서울시장과 박석무(네번째) 5·18 40주년 서울기념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사업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서울시와 광주시는 5·18이 포함된 한 주를 민주인권주간(5월 12~18일)으로 정하고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다채로운 문화예술과 학술행사가 열린다.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일대에서는 40주년 기념음악회, 국제 콘퍼런스, 서울의 봄 라이브 콘서트, 민주·인권·평화도시 선언 전국대회 등이 진행된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시'는 서울기록원과 광주시청 등 양 도시를 순회해 개최한다. 역대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품을 재구성해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 5·18특별전 전시'는 서울에서 열린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사업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공동주최 업무협약'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양 도시는 협약을 통해 5개 분야 사업 공동 추진에 협력한다. 5개 분야는 △민주·인권·평화 우수 정책교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 △광주비엔날레 5·18특별전 전시 교류 △문화·예술 공연 교류 △5·18 40주년 기념 특별전시 등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노원구, 구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서울 노원구는 지역 내 주민들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은 1년으로 2021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본 경우다.

피보험자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과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 원(4주)에서 70만 원(8주)까지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 원 한도에서,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에도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200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

노원구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 사고로 입원 시 1일당 1만5000원의 입원 위로금(180일 한도)도 보장된다. 공공자전거 파손 및 도난의 경우 1대당 10만 원까지 보상받는다.

오승록 구청장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자전거 문화 확산으로 100세 건강 도시 노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셔터 내린 모터쇼… '디지털'로 무대 옮긴 신차들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제네바모터쇼 취소' 업계 대응은

3월 5일(현지시간) 개막 예정이었던 '2020 제네바 모터쇼'가 전격 취소됐다.

스위스 정부가 15일까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및 행사를 전격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 중인 데다, 스위스 현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조직위원회는 "제90회 제네바모터쇼가 취소돼 유감"이라며 "이번 행사는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밝혔다.

◇라이브 스트리밍 통해 잇따라 '버추얼 모터쇼' = 제네바모터쇼는 글로벌 5대 모터쇼 가운데 하나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모터쇼와 비교해 특정 브랜드의 텃새가 없다. 영원한 중립국, 나아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스위스라는 특성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글로벌 IT 전자 쇼 공세에도 밀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제네바 모터쇼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코로나19 영향 개막 직전 취소되자
아우디·벤츠 신차 온라인서 공개
BMW 콘셉트 'i4' 디지털 콘퍼런스

그래서 이번 모터쇼가 하반기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런데도 주최 측은 단호하게 "2020 모터쇼는 연기가 아니라 취소"라며 "추후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서둘러 대안을 찾았고 그 중심에 '디지털 콘퍼런스'를 앞세웠다. 온라인을 통해 이른바 '디지털 모터쇼'를 마련한 것이다. 제네바 쇼를 염두에 두고 준비한 주요 모델을 공개하거나 회사의 새로운 전략을 앞세웠다.

◇아우디 차세대 소형차 전략이 여기에 = 아우디는 온라인을 통해 4세대 A3 스포츠백을 공개했다.

소형 해치백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 아우디의 '헤드램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름도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라고 붙였다. 차 지붕과 측면에서 이어진 강렬한 캐릭터 라인이 앞쪽 그릴로 모이는 디자인은 작은 차를 결코 왜소하게 보이지 않게 만든다. 차 높이와 휠베이스는 이전과 같되 길이와 너비는 각각 30㎜ 커졌다. 3세대와 차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타이어를 감싼 휠 아치는 화끈하게 키워 한결 우람한 모습으로 거듭났다.

❶아우디 4세대 'A3 스포츠백' ❷현대자동차 'i20' 부분변경 모델 ❸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부분변경 모델 ❹푸조 '뉴 208' ❺BMW 뉴 로고

◇BMW 콘셉트 'i4' 공개… 눈길은 다른 곳에 쏠렸다 = BMW는 전기차 콘셉트 i4를 이번 모터쇼를 위해 준비했다. 행사가 취소되자 곧바로 디지털 콘퍼런스를 마련하고 새 콘셉트를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세간의 관심은 콘셉트카보다 새로운 로고에 쏠렸다. BMW는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엠블럼(로고)을 발표했다. 이전 로고를 바탕으로 색상을 바꾸고 한결 진일보한 모습으로 거듭났다. BMW는 간결한 2차원 디자인으로 개방성과 명확성을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BMW가 자동차의 세계를 중심으로 한 기업에서 과학기술과 연결성을 중시하는 기업으로 이행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유럽 올해의 차' 선정 푸조 '뉴 208'
가솔린서 전기차까지 전 영역 섭렵
모터쇼 선보일 기회 사라져 아쉬움

BMW의 로고는 1917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의 디자인 변경이다.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 모델 변경에 꽤 보수적인 메르세데스-벤츠는 7년마다 새 모델을 내놓는다.

그 중간 즈음에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인다. 21세기 들어 이 부분변경 모델을 두고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이제 10세대 모델도 라이프 사이클 상 중간 기점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제네바모터쇼를 앞두고 10세대 E-클래스 부분변경 모델을 준비해온 메르세데스-벤츠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새 모델을 공개했다.

2016년 출시된 10세대는 이미 전 세계에서 120만 대 이상이 팔렸다. 새 모델은 헤드램프에서 강렬함을 덜어냈다.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라인업이 SUV를 중심으로 네모 헤드램프로 복귀 중이다. 새 E-클래스 역시 이런 패밀리룩을 좇아 차분하되 한결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거듭났다.

◇모터쇼 취소… 땅을 치고 후회한 푸조 = 이번 제네바 모터쇼 취소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브랜드로 푸조가 꼽힌다. 뉴 208을 앞세워 '2020 유럽 올해의 차' 타이틀을 거머쥔 채 의기양양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제네바모터쇼 취소가 결정된 이후인 2일(현지 시각) '2020 유럽 올해의 차 발표'가 있었다. 이미 검증된 가솔린과 디젤 동력장치 이외에 순수전기차 라인업까지 아우른 새 모델은 멋들어진 푸조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까지 고스란히 담아 일찌감치 타이틀의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푸조는 뉴 208의 수상을 통해 B세그먼트에서 다시 역사를 써내려갈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하반기 순수전기차인 뉴 푸조 e208이 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준형 기자 junior@

얼굴 바꾼 현대차 3세대 'i30'… '꼴찌' 오명 벗을까

출시 4년 만에 페이스 리프트
패밀리룩 합류하며 반전 모색

2월 한 달 국내 완성차 브랜드가 판매한 차는 59종이다. 가장 많이 팔린 차는 7875대를 기록한 현대차 1톤 트럭 포터, 그 뒤를 그랜저IG 부분변경 모델(7550대)과 8세대 쏘나타(5022대)가 뒤따랐다.

59종 신차 가운데 가장 적게 팔린 국산차는 현대차의 준중형 해치백 i30다. 한 달 사이 고작 32대가 팔리는 데 그쳤다. 그나마 1월보다 2대 늘었다.

1~2세대 i30는 '한국은 해치백의 무덤'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3세대는 이를 뒤집어 다시 한번 '정설'임을 입증해 버렸다.

3세대 i30는 메커니즘이 진일보했다. 그러나 무겁고 둔탁한 디자인 탓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다. 1~2세대가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담았다면 3세대는 심심하고 평범하다. 자존심을 구긴 i30의 극적인 반전은 올해 시작한다.

현대자동차 3세대 'i30' 부분변경 모델

현대차 i30는 4년마다 풀모델 체인지를 단행한다. 1세대(2008~2012)와 2세대(2012~2016)가 그랬다. 2016년 등장한 3세대 역시 '라이프 사이클'을 따졌을 때 올해 4세대로 거듭났어야 한다. 그러나 3세대는 앞뒤 모습을 소폭 개선하는 데 그쳤다. 부분변경(페이스 리프트)이다.

그나마 '페이스 리프트' 결과물이 꽤 걸출해서 다행이다. 2015년 이후 현대차의 페이스 리프트는 그야말로 대변신 수준이다.

i30 3세대 페이스리프트 역시 현대차의 디자인 언어인, 8세대 쏘나타에서 보여준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전 프런트 그릴을 화끈하게 키웠고, 헤드램프 안에는 날카로운 '∠' 자 모양의 '주간주행등'을 심었다. 뒷모습은 현행 모델과 동일하되 테일램프 속에 담긴 '세부 디자인'을 바꿨다.

화끈하게 변신한 얼굴을 제네바 모터쇼에 공개할 계획이었다. 안타깝게도 모터쇼가 무산되면서 '디지털 콘퍼런스'로 대신하며 새 모습을 공개했다.

전체적으로 8세대 쏘나타에서 시작한 현대차의 패밀리룩에 서둘러 합류한 모양새다. 그래도 충분히 멋지다는 게 중론. 올 하반기 국내에서도 새 얼굴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HUSIM

2019 상호 존중하는 좋은경영大賞
THE MUTUAL RESPECT OF GOOD MANAGEMENT
(주)미래바이텍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딱딱하게 굳은 손의 피로

플라즈마 '휴심' 손마사지기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믿을 수 있는 품질, 신뢰받는 서비스 – 휴심핸드케어

◎**원하는 부위 지정 관리!** 기기 앞쪽이 개방되어 있어 손가락, 손바닥, 손등, 손목까지
◎**손으로 주무르는 것처럼!** 3가지 강도와 성별에 따른 맞춤으로 강력한 공기압 에어백
◎**혈자리를 찾아 꾹꾹!** 수지침 지압법과 동일한 휴심만의 특허 마사지 방식
◎**차갑고 시린 손에 딱!** 온열마사지가 가능한 히터 기능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마사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쉽고 자유로운 간편버튼, 가벼운 무게, 무선충전방식
◎**업그레이드 된 지압효과!** 엠보싱 내피천 적용으로 손등까지 빈틈없이 누리는 지압
◎**플라즈마 기능 탑재!** 기기 내 음이온과 양이온이 함께 발생되어 손살균 작용에 도움
※아담 핸드케어(MD-5508W), 이브핸드케어(MD-5500)6W) 적용

온열기능 강력 공기압 수지침 효과 팔목 지압 간편 버튼 충전 무선방식 가벼움 지정집중 플라즈마 기능

새 봄맞이 고객감사 특별 할인

＊기간 : 2020년 3월 31일(화)까지
＊수량 : 모델별 500EA 한정(선착순)

지금, 휴심 손마사지기를 주문하시는 모든 고객님께는 최대 33%할인된 가격으로 프리미엄 손마사지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분께 아름답고 건강한 손을 선물해 보세요~
(3종 중 택1 / 2종 이상 주문 가능)

| 아담 핸드케어(MD-5508W) |
~~₩147,000~~ ☞ ₩99,000

| 이브 핸드케어(MD-5506W) |
~~₩147,000~~ ☞ ₩99,000

| 토브 핸드케어(MD-3307) |
~~₩159,000~~ ☞ ₩108,000

＊이런 분께 권합니다 집안일이 끝이없는 주부 | 핸드폰 사용이 많은 학생 | 컴퓨터 사용이 많은 직장인 | 손, 손목 사용이 많은 미용사 및 요리사

3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 | 온라인 주문 **www.arambi.kr**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 2014-서울중구-0505호
아람비스토어
주문전화 **080•470•8888**

"현지 변호사 손잡고 국제사법 역량 발휘해 승리"

캄보디아서 '캄코시티개발사업' 승소 이끈 차지훈 변호사

재파기환송심 패소 후 화우 해외소송팀이 가세 '6년 송사'
예보 6700억 회수·예금주 3만8000명 피해 보상 청신호

"하급심에서 잇따라 졌고, 최종 패소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소송을 맡았다."

차지훈〈사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9일 피해 예금주 3만8000명, 미상환 원리금 6700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소송전을 우여곡절 끝에 최종 승소로 이끈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캄코시티 개발사업'은 2007년 시행사 분양 실패 등을 이유로 중단됐고 대출 형식으로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은 파산했다. 시행사는 부산저축은행 측이 사업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한 캄보디아 부동산개발사 월드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차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대출금 지급 소송에서 부산저축은행 측이 승소했지만 캄보디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월드시티가 보유한 캄보디아 토지를 처분하는 등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번 소송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1심은 시행사 측에 손을 들어줬다. 차 변호사는 "초기 사업약정 당시 3000만 달러 한도였으나 2억5000만 달러까지 지원했다"며 "법원이 약정한 한도에 의미가 없었다고 보고 자금 지원을 끊은 부산저축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항소하는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측의 실수가 발생했다. 항소이유서에 '1~4번 4개 항목에 대해 항소한다'고 해야 하는 것을 '4번 항목에 대해 항소한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4번 항목은 소송비용 부담 문제였는데 캄보디아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해 항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를 이유로 항소 기각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대법원과 2심을 여러 차례 오간 끝에 가까스로 재파기환송심에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으나 패소했다. 6700억 원짜리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려는 위기 속에서 차 변호사 등 화우 해외소송전문팀은 재상고심부터 구원투수로 나섰다. 상대적으로 미숙하고 불투명한 사법부와 법 외적인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캄보디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점이 승소의 열쇠가 됐다.

차 변호사는 "캄보디아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2011년에 시행돼 판사들이 잘 모르니 판결이 불투명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잘 정리해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사업약정 위반 여부이지만 이외에도 랜드마크월드와 이드 파산선고 효과가 캄보디아에서 효력이 있는지, 주식 60%를 반환한다면 대출금 상환도 동시에 이행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 소송법적이고 국제사법적인 쟁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차 변호사는 "분양 실패의 원인이 시공사에 있는 점과 한국의 3만8000명의 피해자가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 등 사건을 둘러싼 정황적인 부분도 어필했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이러한 논리를 법원에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캄보디아 현지 변호사를 찾아 팀을 꾸렸다. 그는 "한국 변호사와 로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큰 틀에서 전략을 짜고 현지 변호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리드해야 한다"며 "국제사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것이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6년간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6700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차 변호사는 "3만8000명의 예금자와 공적자금을 투입한 우리 정부에 채권회수에 대한 희망을 높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青경제보좌관 박복영 경희대 교수
균형발전위원장 김사열 교수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에는 박복영〈왼쪽 사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사열〈가운데〉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는 정은숙〈오른쪽〉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를 내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박복영 새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대외통상 분야 전문가다. 김사열 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왕성한 연구 활동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에서 문화·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했다. 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는 2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법조인이다. 정일환 기자 whan@

헌혈 캠페인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손잡은 현대차 노사

하언태 사장·이상수 지부장 등 참여…취약계층 마스크 지원도

현대자동차 노사가 9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 헌혈 캠페인을 대규모로 진행한다. 하언태(오른쪽) 현대차 사장과 배상윤 현대차 노조 수석부지부장이 울산공장에서 헌혈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현대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합의'에 따라 단체 헌혈캠페인을 열고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섰다.

하언태 현대차 사장과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9일 울산공장 홍보관에서 헌혈 행사에 참여한 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대차는 이날 헌혈 행사를 시작으로 사내 주요 거점별로 헌혈 차를 배치해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날 헌혈에 직접 참여한 하언태 사장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예방 활동은 물론, 울산공장 본연의 역할인 품질 좋은 차를 만들어 고객에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이상수 지부장은 "노사가 함께 지역사회와 부품 협력사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고객과 협력업체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최대 생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헌혈 행사에 앞서 현대차 노사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4만 매를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는 수급 사정을 고려해 3월 중으로 할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한은 부총재보에 이환석 조사국장

한국은행은 9일 공석 중인 부총재보에 이환석(55) 조사국장을 임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중순 신호순 전 부총재보가 임기 9개월을 앞두고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으로 이직하면서 부총재보 한 자리가 현재까지 3개월간 공석이었다.

이 신임 부총재보는 이주열 한은 총재 취임 후 요직을 두루 거치며 이 총재 키즈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 총재 취임 1년 후인 2015년 미국 워싱턴주재원에서 복귀해 금융통화위원회 실장에 올랐고, 이후 2016년 금융시장국장, 2018년 조사국장을 거쳤다.

그는 1991년 입행한 후 조사국, 통화정책국 등 주요 정책부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조사정책 전문가다. 특히 금융시장국장 재임 시엔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효과적인 공개시장운영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했다는 평가다. 임기는 9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3년이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사회적기업 '전주비빔빵'과 함께 대구에 제과류 지원
울산·인천 공장 인근 주민에 마스크 보내고 기부금도

SK이노·계열사 '십시일반'

사회적기업 '전주비빔빵'이 SK이노베이션과 함께 대구·경북지역 의료진을 위해 2000만 원 상당 제과류를 9일 전달했다. 전주비빔빵 임직원들이 매장 앞에서 의료진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9일 자사가 육성하는 사회적기업 '전주비빔빵'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차원에서 대한적십자에 2000만 원 상당의 제과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과류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한다. 전주비빔빵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90% 줄어들었다. 이런 중에도 전주비빔빵은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전 제품을 10~3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의 전문 보도 채널 '스키노 뉴스(Skinno News)'에 따르면 SK종합화학 화학생산본부 구성원들은 5일 SK 울산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구성원들이 모은 마스크 200여 개를 기부했다. SK인천석유화학 구성원들도 같은 날 지역 내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1% 행복 나눔' 기금 중 3000만 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양주웅 책임연구원·김병열 실장

〈현대자동차〉 〈에이텍에이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0년 3월 수상자로 현대자동차㈜ 양주웅〈왼쪽 사진〉 책임연구원과 ㈜에이텍에이피 김병열〈오른쪽〉 실장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대기업 수상자인 현대자동차㈜ 양주웅 책임연구원은 원격 스마트 주차와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 후측방 모니터 시스템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에이텍에이피의 김병열 실장은 국내 금융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 현금자동입출금기(Smart ATM) 개발로 금융자동화 업무혁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재훈 기자 yes@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이호준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 △해사안전정책과장 정태성 △항만정책과장 김명진

◆**한국은행** ◇부서장 보임 및 이동 △커뮤니케이션국장 황인선 △감사실장 오영주 △대전충남본부장 최요철 △전북본부장 이재랑

◆**국토연구원** ◇보직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장(민간투자연구센터장 겸직) 윤하중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장 김민철 △기획경영본부 연구기획·평가팀장 윤영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전보 △소재부품장비정책단 최일엽 △제조혁신산업단 소순종 ◇팀장 승진 △정산환수팀 권영미 △연구비운영팀(직무대리) 최새봄 △균형발전평가센터 조동현 △전략기술팀 정민하 △시장협력팀 이용상 △철강세라믹팀 장근영 △섬유탄소나노팀 정지인 △융합신산업팀 신우영 △수송플랜트팀 하종현 ◇팀장 전보 △정책총괄팀 김장엽 △정보화운영팀 김용국 △화학산업팀 양진석

◆**아주경제신문** △금융증권부장 전운

부음

▲**명노준** 씨 별세, **명재영**(바이트댄스 사원) 씨 부친상 = 8일, 평택 농협연합장례식장 204호, 발인 10일 낮 12시, 010-2403-3365

▲**배연갑** 씨 별세, **윤성국**(금강일보 대표이사, 목요언론인클럽 회장) 씨 장인상 = 8일, 대구 달서구 송현효병원 장례식장 금강실, 발인 10일 오전 11시, 053-621-4949

▲**변길자** 씨 별세, **임방규**(비전향장기수) 씨 부인상, **임청희** 씨 모친상 = 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20분, 02-2227-7597

▲**김영식**(대동공업 제주대리점 대동기계·남성상사 대표) 씨 별세, **김경순** 씨 남편상, **김수용**(대동기계 전무)·**미현**·**수찬**(대동공업 서귀포영업소 대동농기계 대표)·**미정**(용인 산양초)·**태형**(제주일보 선임기자·논설위원)·**봉구**(연합정밀)·**성구**(파파존스 아산점) 씨 부친상 = 8일,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발인 12일 오전 6시, 010-7269-4226

추창근 칼럼

논설실장

성장도 소득도 망가진 소득주도성장

작년 돌발적 위기가 없었는데도 성장은 멈추고 소득이 쪼그라들면서 국민경제는 더 나빠졌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3년 차의 성적표다. 4년 차인 올해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직격탄이다. 수출·내수·투자 모두 얼어붙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가 망가진 뒤 또 코로나19 사태를 탓할 건가?

한국은행이 집계한 2019년 국민소득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집착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허상(虛像)임을 확인시킨다.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였다. 이는 기준 연도 불변가격에 비교한 것이고, 물가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명목 GDP는 1.1% 증가에 그쳤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0.9% 이후 최악이다. 그것도 정부가 성장률 방어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047달러로 2018년에 비해 4.1% 줄었다.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5.9% 올라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탓이다. GNI 감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타격을 받은 2015년(-1.9%) 이후 4년 만이고,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4%) 이래 가장 크다.

작년 돌발적 위기가 없었는데도 성장은 멈추고 소득이 쪼그라들면서 국민경제는 더 나빠졌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3년 차의 성적표다. 물론 대외여건이 엉망이었다. 글로벌 경기가 가라앉고 미·중 무역분쟁의 타격이 집중됐다. 수출을 떠받치는 반도체 경기도 최악이었다. 하지만 그건 핑계가 안 된다. 명목 GDP 증가율 1.1%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미국·일본·독일·영국 등도 2~4%대 성장을 일궜다. 세계 경제가 좋아도 한국은 홀로 뒤처지고, 나쁠 때 다른 나라보다 더 후퇴했다.

우리 명목 GDP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5.5%에서 2018년 3.1%, 작년 1.1%로 곤두박질했다. 국민경제 부가가치의 원천인 수출과 소비, 투자가 급격히 하락한 결과로, 경기 또한 그만큼 악화했다. 이처럼 심각하게 고장난 경제를 뭘로 설명할 건가.

결국 경제정책의 역주행이 가장 큰 문제다. 근로자 임금을 더 주면 소비가 촉진되고 생산과 투자도 늘어난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모순이었다. 소득은 기업투자를 통한 생산 증대의 결과물이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마차가 말을 끄는' 본말전도(本末顚倒)임을 지적해왔다. 그건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구호이자 복지이념으로, 결코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려한 대로 민간의 규율을 무시한 정부의 반(反)시장적 통제,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반기업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의 실제(實際)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0), 법인세 인상 등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비용만 높이면서 좋은 일자리를 줄였다. 부작용은 정부의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기식 보조금과 재정을 쏟아부은 공공일자리 만들기로 메워졌다. 정부는 또 공정경제의 이름으로 민간기업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침해하고, 국가가 경영에 개입하는 관치(官治)의 족쇄를 양산했다.

이러고서 어떻게 기업활력과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건가. 다시 혁신성장의 기치를 들었지만, 그 또한 유체이탈의 구호였다. 선결조건은 규제와 노동시장 개혁인데, 규제혁파는 늘 말뿐이다. 최근 국회가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로 내세웠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은 무산시키고, 공유경제 혁신의 상징인 '타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모두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했다. 노동개혁에 정부의 눈곱만 한 관심도 없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고집하면서 입맛에 맞는 몇 개 지표만 골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계속 강변한다. 그러나 끝내 소득주도성장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올해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직격탄이다. 수출·내수·투자 모두 얼어붙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지는 양상은 최악의 경기후퇴와 대량 실업(失業)까지 예고한다. 정부는 비상한 대응을 말하지만, 여전히 바꿀 생각이 없는 정책기조가 비상대책을 제약한다.

경제가 망가진 뒤 또 코로나19 사태를 탓할 건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코로나19는 어떻게든 지나가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신기루에 매달려 국민경제가 추락하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나면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마저 놓친다.

kunny56@

정책발언대

백승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코로나19 사태, 원칙·정책 부재가 초래한 人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책임, 무원칙에 분노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초기 전염병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안보가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초기 우한폐렴으로 그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전 세계는 하나둘씩 중국과 통하는 문을 잠갔다. 문재인 정부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 성사를 위한 중국 눈치 보기의 일환으로 초기 방역을 포기했다. 국민보다 정권 업적과 총선 승리를 중요시한 정부와 여당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타났다.

이어 2월 12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방역당국의 통제하에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 중이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집단행사를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한다. 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소강 국면이 아니기에 코로나19를 지속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은 무시됐다.

중수본과 대통령을 믿은 국민은 마스크를 벗고 취소된 집단행사들을 재개했다. 그리고 대구 신천지를 시작으로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공포가 시작됐다.

전염병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 준수이다. 전염병 대응 원칙을 살펴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원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인재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우선,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여 철저한 초기 방역과 과잉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과거의 성공적인 방역은 과거일 뿐, 신종 전염병에는 언제나 초기 유입 차단이 가능하도록 과잉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는 전염병 발병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와 입국하는 내국인들에게는 잠복 기간 동안의 격리 생활을 통해 안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는 확실한 지휘 및 명령 체계가 잡혀야 한다. 전염병 대응 전문 집단인 질병관리본부의 부족한 지휘권한을 대신해 청와대가 대응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과거의 주장과 상반되게 청와대를 컨트롤 타워에서 배제한 결과, 비효율적인 지휘와 책임감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

세 번째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보의 비공개, 거짓 정보, 일관되지 않은 대응은 국민에게 대정부 신뢰를 잃어버리게 한다. 이는 전염병과 공포가 사회에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게 만든다. 정부의 일방적인 종식 선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졌고, 마스크에 대한 일관적이지 않은 대응은 마스크 대란과 소비 위축으로 귀결되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언제든지 전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방역 장비와 물자, 음압병상을 상시 구비하고 감염병 전문 병원이 설립돼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이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돕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의료기술이 부족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전염병은 천재지변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의 일관된 의지와 대응을 통해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져, 전염병은 인재로 변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모든 국가는 초기 과잉 대응을 포기하여 전염병이 확산된 인재이다.

전염병, 인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원칙, 그리고 원칙에 따른 대응이 정책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19까지 모두 코로나바이러스의 높은 변이율로 탄생한 변종이며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은 우리를 무수히 괴롭힐 예정으로, 우리는 과잉 대응의 원칙으로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기자수첩

김동효 부동산부/sorahosi@

마스크 대란과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대책

기자에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방어해줄 KF(Korea Filter) 마스크가 10개 남짓 남았다. 두 아이의 것은 나름 열심히 비축했지만 정작 성인 마스크는 조만간 바닥이 날까 불안하다. 한때 온라인으로 마스크 구매에 몰입해봤지만 똥손인지 늘 실패했다. 지난달 말 마스크 물량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정부는 호언장담했지만 내 손에 들어온 마스크는 없었다. 마스크 생산과 유통 흐름은 물론이거니와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 수급도 파악하지 않은 채 큰소리친 셈이다.

그런데 '마스크 대란'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묘한 오버랩을 이룬다. 이달 홍남기 부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집값이 한창 오르던 지난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말하던 대통령의 발언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땜질 처방에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닮았다. 정부는 지난달 수원시(장안·권선·영통구)와 안양시(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경기 남부지역에서 집값의 키를 맞추려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두더지 잡기식' 대책이라는 조롱에 직면했다. 여기저기서 튀어오르는 집값을 뒤늦게 달려가 망치로 두드리는 식의 대책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는다고 전문가들은 이미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실제 2·20 대책 이후 인천·군포시 등은 지금 이 순간도 집값이 심상치 않다. 계속되는 규제와 피로도에 내성만 쌓여 이젠 대책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마스크 5부제' 역시 대리구매를 두고도 말을 뒤집는 등 설익은 대책과 발언에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집값과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마스크 수급은 국민의 주거와 건강의 문제다. 더 근본적이고,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밥 먹듯 대책을 발표하거나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러다간 조만간 전 지역이 규제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뼈 때리는 조롱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파블로 데 사라사테 명언

"37년간 매일 14시간씩 연습했는데, 그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스페인의 바이올린 연주자·작곡가. 폭넓은 비브라토(떨려 울리는 음)와 에스파냐풍 리듬을 잘 살린 연주에 뛰어났다. 그의 작품 '치고이너바이젠'은 모든 연주법상의 기교가 총망라된 난곡(難曲) 중의 난곡. 당시 그 자신밖에는 연주할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44~1908.

☆ 고사성어 / 십년한창(十年寒窓)

'10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창문이 쓸쓸하다'라는 뜻.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공부에 매진해 성공하는 것을 비유한다. 금(金)나라 유기(劉祁)의 귀잠지(歸潛志)가 원전. "옛사람이 이르기를, 10년 동안 창문 아래에서 찾는 이 없어도, 한 번 이름을 날리면 온 세상이 다 알게 된다."[古人謂十年窓下無人問, 一擧成名天下知]

☆ 시사상식 / 팡(FANG)

FANG은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넷플릭스(Netflix), 구글(Google) 등 미국 4개 IT 기업의 첫 글자를 따 만든 단어. 이들이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속담 / 개도 닷새가 되면 주인을 안다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뜻.

☆ 유머 / 명 판결

성당 앞에 술집이 문을 열자 일부 신자는 '술집이 망했으면…' 하고 바랐다. 문연 지 얼마 안 돼 원인 모를 화재로 술집이 모두 타버렸다. 술집 주인이 성당 측을 고소하고 "성당에서 우리 집에 불이 나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하자, 신자 대표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로 불이 나겠습니까?"라고 강변했다.

판사의 판결. "술집 주인은 하느님의 기도 능력을 믿으니 천국에 가서 보상받으시고, 신자 대표는 하느님 기도 능력을 믿지 않으니, 앞으론 기도하지 마시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논설실장 추창근 | 편집국장 김덕헌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자본시장1부	(02)799-2647	자본시장2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산업부	(02)799-2644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뉴스랩부	(02)799-2664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공포와 탐욕 사이

데스크칼럼

이 채 용
자본시장1부장

황영조가 강원도 바닷가를 달려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누구나 한강변을 열심히 뛰면 메달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유독 주식 투자자들은 '1%의 재능'보다 '99%의 노력'을 신봉하는 이들이 많다. 열심히 뛴다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없듯이 포커를 자주 친다고 모두 '도신(賭神)'이 될 수 없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너무나 명확한 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개미들이 손실을 보면서도 주식에 빠져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 어려운 장이다. 싸졌다고 신규로 진입하기는 무섭고, 이미 손실이 커진 상황에서 뒤늦게 손절매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역대급으로 예측이 어려운 장세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확진자, 사망자 등 계량화 대상 데이터가 한정적이다. 확산 속도와 피해 범위, 경제 피해액 등 현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게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VIX(Volatility Index)지수'라는 게 있다. 투자자의 공포감을 지수화한 지표다. 일명 '공포지수'라고 부른다. 향후 30일간의 S&P500 지수옵션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 기대를 나타낸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옵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VIX지수가 상승하는 이치다. 미국 현지시간 6일 VIX지수는 2011년 금융위기 수준인 41.94까지 치솟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공포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VIX에 공포와 함께 시장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원동력인 탐욕을 더해서 나온 지표는 '공포&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다. 현재 시장의 욕심과 두려움을 수치화한 지표다. 앞서 언급한 VIX(Volatility Index)를 포함해 △NYSE 거래량 △CBOE VIX(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 △주식시장의 가격 세기(52주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한 주식 수 비교) △정크 본드에 대한 수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수익률 비교 등 7가지 지표로 만든다.

50을 중립(Neutral)으로 보고 Greed 지수가 80 이상이면 욕심이 아니라 탐욕의 영역으로 '주식 매도', Fear지수가 20 이하면 침체가 아니라 공포의 영역으로 '주식 매도' 시점으로 인식한다. 미국 현지시간 6일 공포와 탐욕지수는 6이다.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는 의미다.

주식시장은 원래 탐욕과 공포를 먹고 자란다. 오르는 주식은 한없이 오를 것 같고 하락하는 주식은 끊임없이 내릴 것 같다. 비이성적 감정이 작용하는 시기에는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워런 버핏의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투자 철학의 출발선이다.

주가를 움직이는 본질적인 원동력은 바로 돈을 벌려는 인간의 욕심이다.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많이 벌려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도 이 욕심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 결국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모두 서로 적이다.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내가 돈을 벌기 때문이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인지상정이다. 주식 투자에 심리적 요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해 배제해야 한다.

모든 부수적인 요소가 주가에 반영됐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수치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 바로 기술적 지표다. 기술적 분석의 결과물들은 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툴이지만 주가의 움직임을 본질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물론 아니다. 심리가 주가에 반영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법이다. 캔들 패턴, 지지와 저항, 거래량, 매집과 돌파, 되돌림, 수급 주체 분석 등 모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어려운 용어나 기술적 분석보다 이런 간단한 부분에 집중해서 매매 구조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만든 장세인 만큼 공포와 탐욕 가운데 어느 게 맞을지 가늠하기는 힘들다. 다만 확실한 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경험상 매매를 자제하는 게 맞다. 강원랜드 승률은 49%에 육박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바로 1%에 못 미치는 손실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소소한 확률이 누적되면 엄청난 손실로 귀결된다. 불안한 장세에서 개인이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그나마 적은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거래 횟수를 줄이는 게 현명한 투자다. mywish73@

사설

팬데믹 공포 금융시장 패닉, 선제적 안정 급선무

9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가 85.45포인트(4.19%)나 폭락한 1954.77로 마감해 2000선이 무너졌다. 이 같은 급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던 2018년 10월 11일의 4.44% 추락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시장에서 1조3122억 원어치의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치웠다. 이 같은 외국인 순매도액은 1999년 거래소가 일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1.9원 급등한 1204.2원으로 1200원 선을 뚫고 올라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가시화하면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져든 양상이다. 코스피의 '공포지수'가 급등한 것이 말해 준다. 이날 코스피200의 향후 시장 변동성을 측정한 변동성지수(VKOSPI)는 장중 전 거래일보다 30.58%나 높아지기도 했다. 국내 주식시장만 추락한 게 아니다. 일본 도쿄증시의 니케이225지수도 이날 5%,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5%가량 빠졌다.

반면 안전자산인 채권값이 강세를 보였다.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9일 1.075%에서 장을 시작했다가 1.038%로 떨어졌다. 코로나 사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진 것이다.

코로나19는 중국과 한국을 넘어 각국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팬데믹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 또한 증폭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의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불확실성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 같은 이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로 글로벌 증시가 올해 최대 40%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극단적 비관론까지 내놓았다.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금융시장의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거시건전성 3종세트' 등 컨틴전시플랜을 즉각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좀 더 긴박감을 갖고 비상한 시장안정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넘어, 금리인하든 유동성 공급 확대든 대책 마련과 실행을 조금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박은평의 개평(槪評)

금융부 차장

국민 신뢰 떨어뜨리는 '오락가락 정부'

한산한 도로, 문 닫은 상점들,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 평일 풍경이 낯설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은 외부활동을 줄이고,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다. 사람이 몰리는 곳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약국뿐이다.

코로나 쇼크의 대혼란 속에서 재난 상황이 닥칠 때마다 나오는 한국민 특유의 '위기극복 DNA'가 발현되면서 민간기업과 국민의 성금과 물품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계열사와 힘을 합쳐 의료용품과 생필품 등 300억 원을 긴급 지원했고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차, 포스코 등 다른 대기업의 기부도 이어졌다.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 힘을 보태기 위해 삼성, LG, 한화 등은 직원 연수원을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내놓았다. 은행권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신지원·이자감면 등 특별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연예인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성금 기부를 비롯해 감염 예방 물품 제공, 재능기부, 착한 임대인 운동 등에 동참했다. 전국 곳곳에서는 개인과 단체 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과 기부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직면하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극복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고, 국민 350만여 명이 동참했다. 그 덕에 정부는 예정보다 3년 앞당긴 2001년 국제통화기금(IMF) 차입금을 상환했다.

코로나19 사태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오락가락하는 정부 대응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신뢰를 잃은 정부는 남 탓하기에 바쁘다.

"코로나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스스로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언행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마스크는 어떤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수칙으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독려했다. 하지만 마스크 수출로 제대로 공급이 안 됐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마트나 약국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효과가 없다던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과 면마스크 사용도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하지 말 것, 면마스크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는 권고와 대비되는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일본과 호주, 홍콩 등 100여 개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했다.

정부는 정치적 판단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가이드라인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 후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나타나 또다시 한국 사회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책임자 처벌과 방역 관련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

pepe@

건강 100세

2020년, 20/20 시력을 위한 노력

1862년 네덜란드 안과의사 허먼 스넬렌이 스넬렌시력표를 고안함으로써 표준화된 시력검사가 가능해졌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0.4, 0.5라 칭하는 소수 시력은 서양에서 흔히 사용되는 스넬렌시력표상으로는 각각 20/50, 20/40에 해당한다. 정상 시력인 1.0은 20/20인데, 2020년을 맞아 20/20 시력의 건강한 눈을 위해 노력해보면 어떨까.

우선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아기에 시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평생을 좋지 못한 시력으로 살아야 한다. 아이들은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력이 잘 발달하고 있는지, 눈에 이상은 없는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성인의 경우도 녹내장, 황반변성 등 실명을 일으키는 주요 질환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으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한다. 늦어도 만 3세가 되면 안과를 찾고, 40세 이후에는 매년 안과 검진을 받도록 한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샘질환 등이 있으면 눈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이들 질환을 잘 치료해 합병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건강한 눈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담배에는 유해한 독성물질이 많고, 혈액 순환에 악영향을 미친다. 흡연은 백내장,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망막혈관질환, 갑상샘눈병증 등 각종 안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므로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은 필수다. 햇볕이 강한 야외에서는 선글라스나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백내장, 황반변성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눈에 이물이 튈 수 있는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탈 때도 헬멧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안타까운 상황을 막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외에도 손을 깨끗하게 씻고 눈을 비비지 않는 것,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스플레이 장치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눈 건강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김창염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안과전문의

*세균으로 오염된 면직물(10cm X10cm) 부착 후 에어살균+코스 작동.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대장균을 99.9% 살균. *인터텍 검증을 통한 자사 실험치이며,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